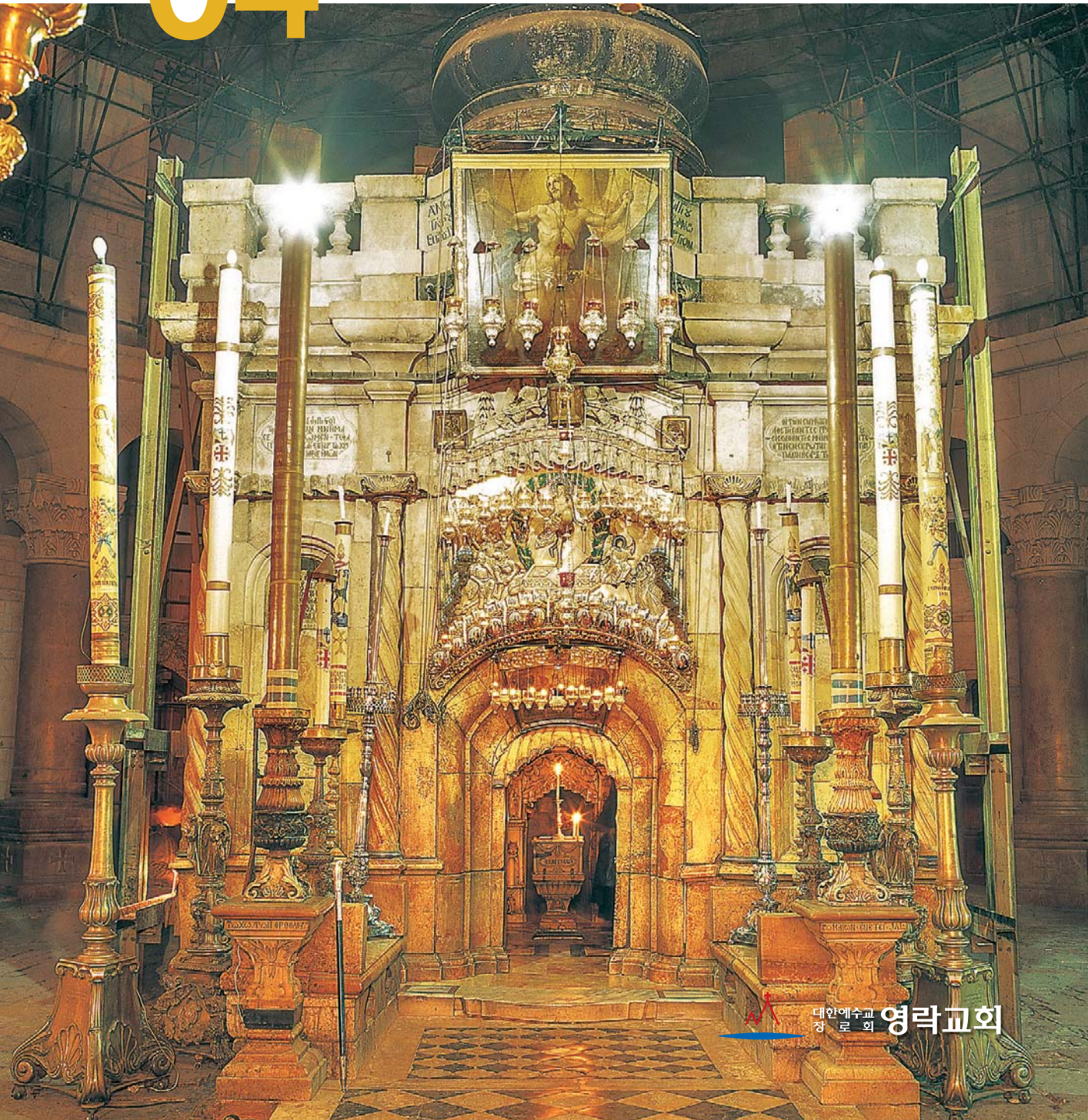


만남

04

2021

통권 566호





“순종의 삶 살겠습니다” 신임 권사 86명 임직

신임 권사 임직식 및 권사헌신예배가 2월 28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열렸다. 권사회 창립 55주년을 기념하며 드린 이날 헌신예배는 김영하 권사회 회장 인도로, 부회장 안자이 권사의 기도 후 황광용 목사(권사회 지도목사)가 ‘기뻐하며 돌아가서(마태복음 13:44~46)’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김운성 위임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권사 임직식에서는 신임 권사 86명이 오른손을 들어 권사의 직분에 충성하고 선교적 사명에 헌신하기로 서약했다.

김운성 목사는 “교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가정에선 신앙의 어머니로서 헌신하길 바란다”며 신임 권사들을 격려했다. 이어 신임 권사를 대표해서 정승곤 권사가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눈을 들어 발을 보라하신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여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임직 소감을 밝혔다.

취재 유혜정 편집위원 사진 원종석 기자

교회표어

눈을 들어 발을 보라
(요한복음 4:35)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은혜에 감격하여 김운성

부활절 특집 04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삽시다! 유기성
07 거룩한 무덤교회 김정혁
08 부활, 빛으로 온 교회 오동희

한경직 목사 21주기 12 코로나 시대, 더 절실한 ‘그 분’의 리더십 김성호
15 한경직복음학교가 문 엽니다 송 훈
18 웹툰 <목사 한경직> 김채현

말씀대로 365 20 오늘 내게 주시는 만나 천천히 묵상합시다 김충섭

다음세대 24 누가 만물의 영장인가? 김기현
26 다음세대, 기독교 교육이 해답이다 감경철
29 유튜브 봄맞이성경학교 재밌었어요 박하운
30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홍성매
32 지저심어게인-다시 예수님을 부르다 이영호
34 2시간 수련회예배, 하나도 안 길었어요 김예린

땅끝까지 이르러 36 선교부장 심재수 장로 인터뷰
40 의료인으로 성장해가는 잠비아의 딸 나타샤 므통가

영락의 울타리 42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유태완
44 그리운 구역예배 강혜영
46 “이상한 하나님, 이상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김종태
48 예배와 찬양으로 행복한 영락노인전문요양원 최영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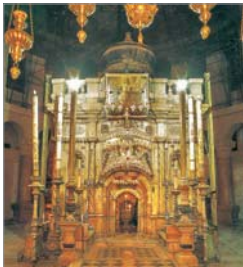
야곱의 우물가 50 한경직 목사와 나

문화광장 55 아름다운 울림을 위한 마음조율 박성은
56 헨델의 “주님께 영광” 박신화
59 고난과 축복 이혜순

교회소식 60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회 외
66 4월 목회력
67 편집장 레터

성서의 현장 68 예루살렘 다윗성

표지설명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 사건의 현장인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묘교회의 모습. 성묘교회는 ‘거룩한 무덤교회’로도 불린다.

(관련기사 7면)

제공 김한기 사진기자

은혜에 감격하여

김 운 성 위임목사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10)

올해도 어김없이 4월이 되었고, 한경직목사 기념주간이 다가옵니다. ‘한경직’이란 이름으로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가신 목사님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영락교회 성도들은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마음이 남다릅니다. 올해로 목사님께서 천국에 가신지 벌써 21년째가 되지만,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고 간절하게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영락교회는 이런 마음으로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를 조직해서 목사님의 신앙과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경직목사 기념상>을 수여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아름다운 일을 행한 분들에

게 드리면서, 우리도 작은 한경직이 되어 예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려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잊는다면, 그것은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개 ‘한경직 목사님처럼!’이라 할 때, 그 밑에 흐르는 정서는 ‘우리도 한경직 목사님처럼 아름다운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적 선행을 추구하게 되고, 이는 한경직 목사님의 신앙과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함’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마음은 늘 ‘하나님 은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여러 분야에서 충성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헌신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경직 목사님의 마음이 잘 드러난 것은 친히 작사하신 찬송가 444장입니다. 가사를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 겻세마네 동산에서 피 땀 흘린 주의 기도

십자가에 죽으심도 모두 나를 위함이라

2절 / 주홍같은 붉은 죄를 흰눈 같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삶 주시었네

3절 / 풍파이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도

주의 은혜 크신 사랑 잠시라도 잊을쏘나

4절 /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께 모두 바친대도 아쉬움만 남아 있네

5절 /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최후 순간 그 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리

후렴 /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찬송의 1~3절에는 겻세마네의 기도, 십자가의 죽음, 보혈을 통한 죄씻음, 하나님의 자녀됨, 지금까지 살게 하심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4~5절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의 마음을 담고 있는데, 그 마음이 복음 전파로 이어지며, 후렴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경직 목사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묵상하고,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격하며, 받은 은혜

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만약 우리가 한경직 목사님의 가슴에 사무치던 은혜를 간과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만 마음을 둔다면, 가장 큰 패착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우리 모두 사랑하여 암송하는 바울 사도의 신앙고백입니다. 바울의 가슴에 사무쳤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핍박자였던 자신을 구원하시고,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열매를 맺은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사 그대로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 우리를 부르신 이, 우리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서지 못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강한 성도가 되게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것도 은혜요, 성도님들이 이 글을 읽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안디옥교회가 선교할 때, 바울을 비롯한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 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사도행전 14:26)

우리도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길 원합니다. **만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삽시다!



부활이 이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절의 진정한 관심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지금 나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28:20에서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이란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셨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5)

저의 어머니는 제가 대학 4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쓰신 어머니께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고 유언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나와 내 동생들을 위해 기도해 줄 어머니가 없어졌구나!’는 사실이 가장 슬펐습니다. 묘지에서 하관식 마치고 오는 날, 자꾸 뒤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묻고 온 그 자리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는 하나님 곁에서 나를 내려다보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큰 위로가 마음에 임했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살아 계

실 때보다 더 세세히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이를 깨닫고 나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것과 다릅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함께 계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꼬박 하루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나누었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가 속죄의 복음,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은 것이 은혜의 전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라디아서 2:20)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서 ‘주님과 함께 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로마서 6:4)

성경에서 세례의 의미는 하나 됩니다. 곧 세례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징표로 주어지는 의식입니다.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는 것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로마서 6:5)

예수님의 생명은 부활의 삶, 생명의 삶, 능력의 삶, 예수님이 주님이신 삶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의 진정한 관심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성질과 죄된 습관을 하나 하나 죽여가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과연 나의 모든 죄성이 언제 다 죽을까, 과연 이 죄성이 다 죽을 때가 올까?’ 생각하

며 절망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들도 대부분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계속되는 마음의 평강을 가져다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 뿐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도 살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의 주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4:10~11)

사도 바울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린도전서 15:31)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는 열쇠입니다.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형편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두움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삼시다(로마서 6:1~5) 이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요,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서 부활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만남**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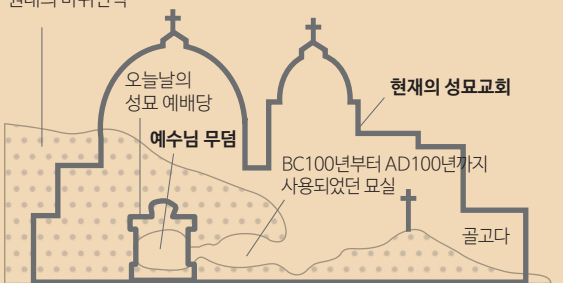
거룩한 무덤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 사건의 현장



예루살렘 성묘교회 내부에 자리한 '예수님 무덤교회'

성묘교회 건축을 위해
AD326년에 깎여져 나간
원래의 바위언덕



예루살렘의 “성묘교회(Church of Holy Sepulchre)”는 지난 이천년 동안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거룩한 곳으로 여겨져 왔다. 그 이유는 “거룩한 무덤교회”로도 불리는 이 교회가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졌고, 이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 사건의 현장이었기 때문이다. 해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순례자들과 성직자들이 이곳 거룩한 무덤교회를 찾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의 의미를 새겨왔다.

하지만 이 골고다 언덕을 지금 직접 방문 한다면 적잖이 당황하실 것이다. 예수님 당시 골고다 언덕의 흔적을 제대로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성경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는 황폐하고 삭막한 언덕 대신 정교한 장식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서있다. 주후 4세기 이곳이 성지화 된 이후로 지난 2천년 동안 종교가 다른 수많은 제국들이 이 땅을 점령해왔다. 그때마다 ‘성묘교회’(거룩한 무덤교회)는 파괴와 복원을 반복해 왔고, 오늘날 예수님 무덤교회 형태는 십자군 시대(12~13세기)에 이르러

서 만들어졌다.

현재 이곳은 기독교 사제와 수도자들이 예수님 무덤교회를 관리하고 있다. 가톨릭, 그리스-아르메니아-시리아 정교회, 콥트교회 등 기독교 여러 종파들이 이곳을 놓고 끊임없는 소유권 분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예수 성묘교회 건물 기초와 바닥재를 복원하기로 합의해, 2019년 5월부터 약 9개월간 복원 공사를 거쳐 2020년 일반 공개를 재개했다. 예수님 무덤의 작은 구조물들이 붕괴될 것을 우려해, 기독교인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이곳을 복원했다.

연간 500만 명이 찾던 이곳이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성지순례객들의 발걸음이 끊겼다. 2021년 코로나19 상황아래 부활절을 맞는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기도한다. **만남**



1

부활, 빛으로 온 교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창세기 1:2~4)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은 구약시대 수천 년을 이어온 교회 건축에 변화를 준 근본적 계기가 되었다. 예수님은 가르침과 말씀 전도를 통해 교회의 전통적 관념을 바꾸셨다. 갈릴리해변, 요단강가, 산 등 어디서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은 성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선포하셨다.

250여 년의 종교적 박해를 겪은 초대교회는 기원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로부터 기독교 공인

을 받았지만, 정치·사회적 세력으로 변질하면서 크고, 높고, 위압적 형태의 교회로 건축하게 되었다. 높은 권위를 상징하려는 듯 화려한 장식과 엄청난 미술품으로 가득 채운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교회는 예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사실상 막아 버린 것이다.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은 교회 건축 내부의 구조와 장식 등 형식의 변화도 가져왔다.

빛으로 오신 예수, 하늘과의 통로

“낮고 조그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둠이 가득 찬 하공의 공간이 가로막는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자 어둠의 끝에 하늘에서 스며들어오는 한 줄기 빛이 발길을 인도한다. 그 빛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교회 건축을 가장 간결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겐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를 떠올려본다. 어스름 달빛 아래, 하나님을 향해 외롭게 기도드리던 어둠의 장소였으리라. 한 줄기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소망의 빛으로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빛은 고대로부터 성전과 교회 건축 설계의 가장 중요하며 유용한 건축언어로 인식되어왔다.

로마의 판테온은 천창을 통해 건물 안으로 빛을 불러들인다. 둥근 천창을 통해 산란하는 빛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돔 안쪽이 신비롭다.(사진2)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비잔틴 건축의 대표적 걸작인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의 아름다운 모스크

와 돔 형식의 지붕은 1500년이 지난 지금도 놀랍지만, 내부공간은 더 놀랍다. 왜냐하면 돔의 천창과 좁은 아치창으로 들어오는 빛에 의해 시시각각 변하는 찬란함은 공간 자체를 한 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신비로움, 즉 신성함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것을 건축 용어로 ‘비물질화’(De-materialization)라고 하는데, 이런 효과는 수많은 중세건축물에서 발견될 뿐만 아니라 현대건축에서도 그 추상적인 개념이 더 포괄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20세기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장식을 배제하고 본질적이고 순수성을 갖는 건축이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로 퍼져나갔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우드랜드 묘지공원(사진3)은 1917년 군나르 아스플룬트와 시그루트 레베렌츠가 설계했는데, 죽은 자들의 공간인 묘지를 인공정원과 같이 완벽한 조화로움을 이루는 장소로 완성했다. 부활의 예배당(The Chapel of Resurrection)과 우드랜드 예배당(The Woodland Chapel)을 거쳐 하이라이트인 신념, 희망, 거룩한 십자가의 예배당(Faith, Hope and the Holy Cross Chapel)에 이르면, 부활과 십자가, 즉 삶과 죽음의 고요함을



2



3



시각적 상징 하나 없이 완벽하게 놀라운 감동을 자아낸다. **(사진4)**

형태도 없이 자연 속에 슬쩍 기대고 있는 듯한 이 건축물은 이전의 교회 건축이 추구했던 권위와 신성에 대한 시각적 상징을 모두 배제하고 침묵과 고요함의 건축을 통해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듯하다.

파리에서 동남쪽 스위스 취리히 방향으로 400km를 달려 벨포르의 한적한 마을 외딴 언덕 위 성당이 세계적 명소가 되었다. 유럽뿐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도 이 건축물을 보려고 시간과 돈을 들여 찾아와 묵묵히 감동의 시간을 보내고 간다. 정식명칭이 노트르담 뒤 오프(Notre Dame du Haut)인 이 순례자배당은 롱샹(Ronchamp) 마을에 있어 롱샹 성당이라고도 불린다.

1950년 세계적인 건축가 르코르뷔지에는 기존의 교회 건축이 가진 형식을 완전히 탈피하여 종교적 상징을 넘어 공간적 상징을 담아 설계했다. 그 가장 핵심에는 빛이 자리한다. 봄·여름·가을·겨울에 따라 표정을 바꾸고, 아침과 저녁, 또 늦은 오후에 따라 공간적 인상을 변화시키는 빛의 유희는 이곳을 찾는 수많은 성도에게 깊은 신앙적 감동을 품게 했다. 르코르뷔지에는 기존 성당 건축의 형식과는 아주 다르게 해석하여 설계했지

만, 오히려 그 공간의 의미나 각 부분의 건축적 요소의 표현은 무엇보다도 교회적이다. 창 의 형식과 오색찬란한 스테인드글라스는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한 영성적 감정을 일으킨다. 이렇게 빛을 자유롭게 활용한 건축물이 과연 그 이전에도 있었을까 할 정도이다. 마치 기도하는 손과 같은 느낌을 주는 언덕 위 외관은 얼핏 노아의 방주를 연상케 하는 생명의 배처럼 보이기도 한다. 롱샹은 건축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한마디로 과거로부터, 관념으로부터의 전환이다.

겨울이 끝나가는 2월 중순경에 방문했던 이곳에서 예수님의 수난과 십자가,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빛의 감싸임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느끼는 듯 시간의 멈춤을 경험했다. 건축가가 의도했건, 아니했건 공간의 질적 변화처럼 방문객의 감동도 셀 수 없이 다양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칠십 년 전에 건축된 롱샹은 한국의 교회 건축을 비롯해 많은 건축 작품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사진1, 5)**



빛과 자연

자연이 아름다운 미국, 캐나다의 순례자 교회 중에는 가끔 나무숲 사이에 유리로만 건축된 교회를 볼 수 있다. 교회가 온통 나무숲 사이에 그냥 놓여 있어 예배공간의 신비로움을 자연이 대체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을 빛으로 추상화해 극히 제한된 빛을 사용하는 교회와 달리 이러한 교회는 빛에 완전히 노출되어 부활의 축복을 축제처럼 찬양하게 된다.

우리나라로 눈길을 돌리면, 경기도 가평 깊은 산속에 특별한 교회가 있다. 산속 길을 따라가는 끝에 학교처럼 생긴 하얀 건축물이 나타난다. 막상 건물의 내부로 들어서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빛과 자연의 잔치가 어우러지는 예배공간을 만나게 된다. '생명의 빛 예수마을'의 예배공간은 들어서자마자 부활과 축복의 공간임을 느끼게 하는 특별한 형식의 교회건축이다.

프랑스 그로노블 대학교수인 건축가 신영철은 기증받은 통나무를 이용해 예배공간의 덮개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신비한 빛의 공간을 구현했고, 이 통나무로 둘러싸인 공간을 영원한 생명적 건축으로 탄생시켰으므로 또 다른 형식의 비물질화를 이루어 냈다. 특히 수백 그루의 홍송을 사용한 예배공간은 마치 숲속 무중력의 새둥지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부유감(Floatness)을 느끼게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건축에 사용한 홍송은 베어낸 죽음 즉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연결된 홍송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라고 한다.(사진6)

'생명성' 지향하는 교회 건축 기대

한국 교회는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상 가장 괄목



할만한 확장을 이루었다. 그러하기에 셀 수 없이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지어졌고 또 앞으로도 지어질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교회 건축은 그동안 외형적 보임에 치중해 왔다고 생각된다. 더 큰 예배공간, 더 훌륭한 음향시설, 더 많은 교육공간을 원하며, 형태적 상징성이 더 강한 디자인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에 중점을 두어 '생명성'을 지향하는 교회 건축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살핀 몇 가지 사례는 교회 건축에 있어서 빛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 빛은 생명성과 깊이 관련된다. 침묵과 영적 고뇌로 탄생하는 부활의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줄기 빛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은총을 허락할 것이다. 부활, 빛으로 온 교회를 바라본다. **만남**



오동희 안수집사
성남·분당교구
간삼건축종합사무소 대표

코로나 시대 더 절실한 ‘그 분’의 리더십



빛은 어두울수록 더욱 빛나고 몹시 추운 겨울을 보낸 봄날의 앞새는 더욱 푸르게 빛난다. 그러나 지금 2021년의 봄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춘래불춘(春來不春)이다.

우리 영락교회의 교인들만이 아니라 전국 어느 교회에서든 3불(不) 정책 곧 밀폐(密閉)않기, 밀착(密着)않기, 밀접(密接)않기가 기준이 되어 대단한 선물이나 선택을 받은 듯이 예배당 긴 의자에 널찍하게 떨어져 앉아 예배를 드린다. 교인들은 “교회에 와도 교회에 온 것 같지 않다” 아니 그보다 “주일(Lord's day)이 와도 주일인 것 같지 않다”고 말한다. “주님 찾아 오셨네 모시어 들이

세~”(찬송가 534장)는 밀폐로, “귀하신 주여 날 불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찬송가 433장)는 밀착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찬송가 220장)는 밀접이 되어 모두 금지. 지금은 집에서만 찬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저 뜨거운 심정을 마음에 담은 채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이 어찌된 연고입니까?” 할 뿐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눈을 들어 도움이 어디서 올까?”(시편 121:1)를 되뇌면서 우리를 “설 만한 물가로 인도 하시며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시편 23:2) 지도자를 찾는 가운데 “말씀만 하옵소서”(마태복음 8:8)라고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김포공항으로 가는 길을 지나다 ‘영락’이라는 상호를 쓴 양복점을 보았다. 어느 날 음료수를 들고 일부러 찾아갔다. “어떻게 영락양복점이란 이름을 쓰셨어요?” “영락교회 교인이세요?” 물으니 “아니요, 영락교회가 좋아서요.”라고 말씀한다. “그럼 한경직 목사님을 아세요?” 물었더니 “그럼요. 존경합니다. 큰 어른이시지요. 가끔 말씀도 들었구요.” 양복점 사장님의 말씀은 계속된다. “제 양복점은 종로 3가 쪽에 있었지만 청계천에서 원단장사를 하던 인연으로 저동(구한말의 명칭인 永禧殿과 掌樂院을 합친 일제 시대 주소 永樂町2丁目은 저동 2가로 바뀌었고, 지금은 중구 수표로 33번지가 되었다) 영락교회에 많이 갔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얼굴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1973년부터 상호를 그렇게 썼습니다.”

영락양복점 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리더십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리더십을 ‘공통된 목표달성을 지향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 또는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 또는 집단에 영향을 주는 과정’이라고 요약한다면 리더는 결국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이다.

세상에서의 이끔(Leadership)은 세상적인 성공과 행복을 위하지만 신앙생활에서의 리더는 지친 영혼들에게 하늘의 것을 사모하도록 한다. 그동안 받은 것을 감사하여 더 많은 것을 남에게 베푸는 등의 선한 능력(Good influence)을 행사하면서도 드러내지 않고 세상을 살아볼 만하게 만들고 이끌어 주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사는 동안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의 문제와 이의 결과’이다. 그리고 언제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

게 된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충성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good and faithful servant·良善又忠心的僕人)”(마태복음 25:21)이다.

겸손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한목사님이 2003년에 샘터사에서 출간한 책의 제목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였다. 비단 목사님 뿐이겠는가? 장로와 전도사, 청년, 부녀, 학생, 집사, 신학도, 교사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공부하는 물론 집안일, 교회 일, 나라 일을 그저 “바쁘게 열심히만 하지 말고 잘하라”고 하셨다.

한국 교회에서 ‘존경하는 리더가 누구인가와 그 이유’를 묻는 한 설문에서 한경직 목사와 손양원 목사가 제일 많이 거명되었다. 다음으로는 주기철 목사, 조만식 장로, 장기려 선생 등이 언급되었다.

그동안 한경직 목사의 리더십은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그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 상징적 리더십, 겸손의 리더십, 셀프 리더십, 팔로워 리더십, 덕(德)의 리더십으로 불리고 있다.

더불어 그는 오직 말씀으로 감동을 주고 일깨웠던 ‘열정의 비전 메이커’이며 영혼을 감화시켜 온전히 믿고 따르고 순종하게 하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끌어온 ‘영적 리더(Spiritual Leader)’로 불리는 등 영락교회는 물론 한국의 교계와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한국 목회자들의 롤 모델’이라는 명성을 받고 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은 영적인 카리스마와 신령한 예배를 통한 지적 자극 이상의 영감적 자극과 동기 부여로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헌신 그리고 봉사는 물론 세상에서의 활동과 삶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선한 영향력의 행사로 자존감을 갖게 하는 등 영락교회라는 영적 공동체(Spiritual Community)의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

치켰다.

결국 목사님의 리더십은 특정의 학설이나 주장으로 제한되거나 규정되지 않고, 특히 목회 현장의 실천적인 면에서 다양한 프리즘으로 투영되고 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불행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의로운 사람에게는 그 일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 38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행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승리의 결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단단히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날은 예배당을 준공하고 감사의 부흥사경회를 마친 후 20일도 채 되지 않은 6월 25일 주일 아침에 인민군이 ‘땅크’를 앞세우고 미아리고개를 넘어 오고 있다는 흥흥하고 끔찍한 소문이 현실이 되는 날 주일 아침이었다. 이날 부른 찬송은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의 543장이었는지도 모르며 아마도 그때 모두는 한 마음이 되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을 참아내며 이 찬송을 불렀을 것이다.

우리에게만 있는 나라, 우리나라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삼천리 반도는 금수강산으로 지켜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조차도 사치스럽던 빈궁의 삶과 피폐한 심령으로 눈물조차 말라버린 피난민들이 모이고 또 모여온 중구저동의 영락교회는 이제 한국은 물론 세계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

영락교회라는 거룩한 브랜드(Holy Brand)는 우리들의 신앙적 자부심이고 자랑스러운 이름이며 선과 악, 참과 거짓, 빛과 어둠을 구분하게 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뚝 서게 할 삶의 기준, 신앙의 표상이다.

한편 지금 우리들의 염려와 걱정은 많은 세월이 흐르게 되면 그 분의 거룩하고 담대한 리더십에 의한 ‘사명과 비전들이 너무도 쉽고 빠르게 흐려지고 잊혀 지지는 않을까?’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들이 한 행동으로 기억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경직 목사님의 리더십은 우리에게 “그냥 가라(하라)하지 않고 함께 가자(하자)”고 한다. 지금 우리들이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를 배불리고 사치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정성, 헌신과 봉사(사실은 주님 주신 모든 것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시간적으로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바로 ‘이 때를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만남**



김성호 교수
협성대 글로벌경영대학 명예교수
2020년 한경직 논문상 수상

한경직복음학교가 문을 엽니다



‘한경직복음학교’가 4월 17일 문을 엽니다. 한경직복음학교는 신앙인들이 한경직 목사님의 복음적 신앙 유산을 이어받아 교회와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목사님은 설교 <잠언의 교훈>에서 하나님과 나, 나와 이웃, 나와 재물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한경직복음학교의 첫 주제는 이 세 가지 관계에서 도출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나와 이웃, 나와 물질’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의도 안에서 이 세 관계들을 회복하자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과 강의 영상 온라인 시청+매주 비대면 소그룹 영성모임으로 진행합니다. 한 차수당 총 5주 과정이며, 각 차수 20명으로 인원을 한정합니다. 시즌 1 (2022년 봄까지)은 총 10여 차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락교회 교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목사님의 삶과 사역을 바탕으로 한경직복음학교를 준비했습니다. 한경직목사 설교전집, 자료전집, 한경직목상365 등 여러 저서를 분석하여 2021년 영락교회와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를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목사님의 삶을 다시 돌아본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1902년 12월 19일 평안남도 평원군 공덕면 간리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남강 이승훈, 고당 조만식 등 민족주의 기독교인들로부터 교육 받으며, 기독교 신앙과 민족주의를 함양하며 나라의 독립과 부흥을 위한 개인적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은 미국 프린스턴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예일대학교 교회사 박사학위 진학을 준비하던 중 폐결핵으로 생사의

기로에 직면하여 기도하던 중 민족복음화의 사명을 다시 깨우쳤습니다. 1932년 귀국한 뒤 평생을 민족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그의 평생의 사역은 전인적인 기독교 인재 양성, 지상 명령으로서의 복음전도 강조, 복지기관을 통한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펼쳐져 나갔습니다.

목사님의 신앙은 철저한 죄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한경직목사기념관의 전시관 입구에는 창세기 3:9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 늘 본인이 죄인 됨을 뼈저리게 고백하며, 그 죄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한경직복음학교 동영상 강의

4월 17일 온라인 개교

5주 과정 영성모임

‘하나님과 나, 나와 이웃, 나와 물질’ 주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삶을 다짐하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임재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적 사건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총으로 인해 죄인이 변화되어 감사하며 새로이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야말로 감사의 종교이며 이 감사는 새로운 나눔과 헌신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준비한 한경직복음학교는 온라인 기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은 총 5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학습 인원은 한 기수가 20명~30명으로 이뤄지며 연인원 200명을 목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은 총 3개의 강좌를 수강하며 매일 그 주간 주제에 맞는 한경직 목사님의 주제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의 영성 에세이를 작성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본인의 영적 상태를 고찰해보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경험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과 함께 소그룹 비대면 모임도 진행

됩니다. 학생들 각자가 쓴 영성 에세이와 말씀 묵상 등을 비대면 모임에서 함께 나누고 더 깊은 이해와 묵상을 위한 안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복지기관을 위한 중보기도, 이웃과의 만남을 통한 영적 교제 등 과제들을 수행하며 목사님의 복음주의 신앙을 매일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5강은 <영화 : 한경직>을 함께 보며 목사님의 복음주의적 신앙이 그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었고 다른 많은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신앙은 개인적 고백의 차원을 넘어서 믿음의 역동적 행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의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의 공화를 닮는 봉사의 헌신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헌신의 가장 큰 영역은 전도이며, 이웃에 대한 봉사도 하나의 복음 전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목사님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헌신과 공화의 대상은 인종, 지역, 민족, 국가를 뛰어넘는 전 인류를 포괄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이 공화

한 행함은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입니다. 목사님은 베다니전도교회 초창기 설교에서 이러한 공훈과 헌신의 신앙이 바로 상부상조의 신앙임을 강조합니다. 나그네 된 월남인들이 신앙 안에서 서로 돕고 공훈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 또한 이 땅의 나그네 된 자로서 상부상조의 신앙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섭고 추운 바람 속에서 더욱 가까워지는 것처럼, 나그네 신앙인들은 어려운 때일수록 강하게 연대하고 서로 돕고 헌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나그네 신앙은 이 땅의 물질에 대한 소유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계의 모든 물질 즉 토지, 재산, 심지어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단지 이것들을 아름답게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을 우리의 욕심과 목적을 위해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써야 하며, 자연조차도 하나님의 창조질서 속에서 인간이 선하게 관리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순례자,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그리스도인에 관해 깊이 고민했던 한경직 목사님은 물질을 벌고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와 공훈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늘 정직하게 일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벌지 말고,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까지 도와주고자 하는 정신으로 생업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재물을 사용함에서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써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물질을 벌고 쓰는 데 있어서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는 공의의 신앙이 바로 복음주의적 신앙이라고 강조하십니다.



한경직복음학교 동영상 강의 출연진

이러한 한경직 목사님의 신앙관을 기반으로 하여 이번 한경직복음학교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감사의 삶을 사는 것, 이웃에 대해 늘 정직과 공훈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 물질에 대해 정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청지기의 삶이 이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올바른 복음주의적 삶과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는 한경직 목사님의 신앙 가르침과 그 비전을 한경직복음학교를 통해 여러 성도님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학교를 통해 개인의 삶을 되돌아보고, 올바른 복음적 관계를 회복하여 개인, 가정, 공동체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원하며 여러 영락의 가족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신청은 4월 1일 부터 교회 홈페이지와 QR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만남**



송훈 교수
송실대 초빙교수

「나의 감사」를 읽고

목사 한경직

그림 김채현 영락의료과학교 3학년







오늘 내게 주시는 만나 천천히 묵상합시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2021년을 사는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초대할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감염병이 종식되기를 바라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또한 그 말씀의 복이 우리 삶의 자리를 지켜 주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365〉는 365일 동안 성경을 완독하는 시간입니다. 개인적인 바램은 성경 1독을 완결하는 것이 목표이겠지만, 목표만을 위해 급하게 말

씀을 읽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하루 분량을 오늘 나에게 주는 만나로 여기며, 천천히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2의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처럼 온종일 되새기며, 나에게 주는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예전에 수없이 읽었던 본문이지만 오늘따라 새롭게 느껴지는 말씀, 단어들이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기도 합니다.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급하게 읽지 마시고,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집중하여 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 아브라함에게 또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제는 나의 말씀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자세

성경 66권이 기독교의 정경이라는 것은 성경이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고 척도가 되는 책으로서, 특히 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되는 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신적인 특징’을 지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형성된 글이라는 ‘인간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계시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록했기에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담지 못함을 이해하고 읽어야 합니다. 이러한 양면성을 바로 아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31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모든 기록 목적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인물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이해한 하나님을 전하고 있으며, 그를 통해 글을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같은 믿음을 전하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고백이요, 신앙에 대한 증언입니다.

〈말씀대로 365〉를 통해 말씀을 읽는 우리 성도들의 목표 혹은 결과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혼자 읽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수십 번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너무 많습니다.

진리에 대한 간절함:

성경을 읽는 자의 가장 고귀한 덕목

그러하기에, 매일 새로 올려드리는 〈말씀대로 365〉 영상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365〉 동영상은 본문의 개관 및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 바쁜 상황 속에서 건너뛰는 경우가 많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통독하고, 두 번째로 영상을 시청하고, 세 번째 다시 통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시간을 투자하여 집중하는 만큼 은혜는 더 커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기록하거나, 믿음의 공동체(소그룹) 카톡방에서 이를 나눈다면 더 큰 은혜로 함께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영락 성도님의 마음 발이 베뢰아 사람들 같길 바랍니다. 베뢰아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들의 회당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한 가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선포되는 예수의 복음에 대해 간절함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이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말씀대로 365〉를 통해 성경 통독에 도전하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베뢰아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간절함은 성경을 읽는 자의 가장 고귀한 덕목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과 열심으로 읽어나갈 때 여러분은 엄청난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처음 다섯 책: 모세오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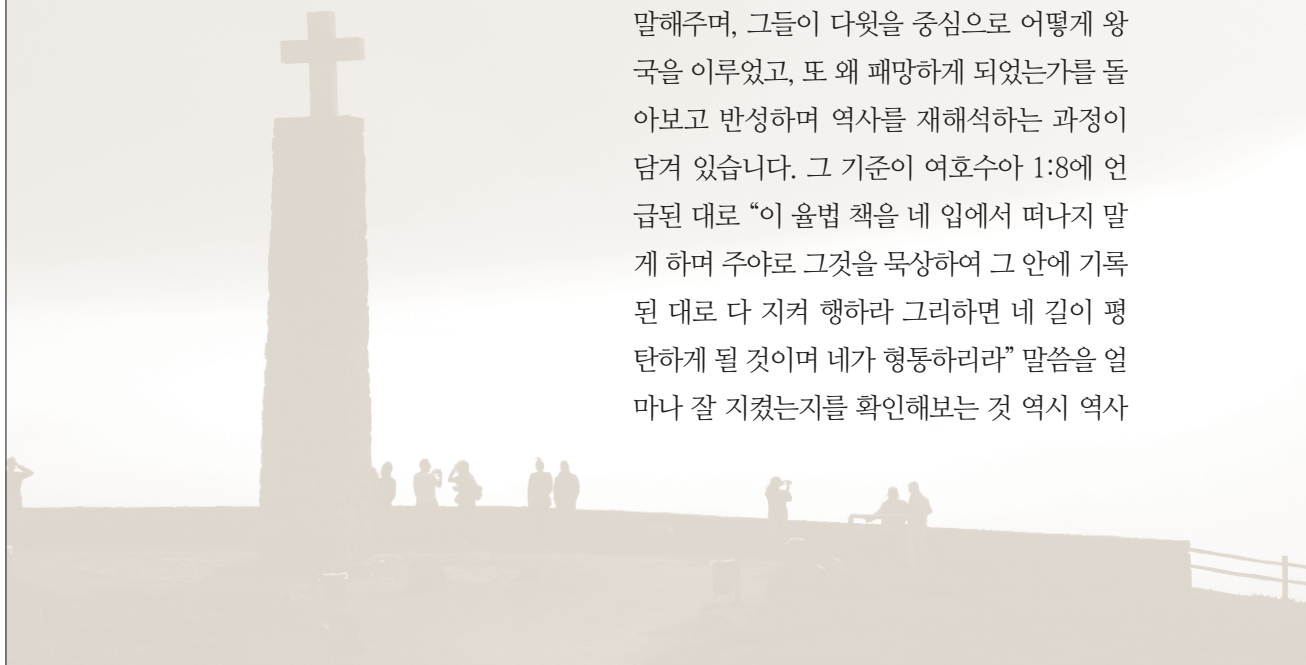
구약 성경의 처음 다섯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들 다섯 책의 묶음은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서의 필수 요소로 인식되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다섯 권의 책을 ‘토라’(Torah)라고 부릅니다. 모세의 기록으로 가장 높은 권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유일한 사람으로(출애굽기 33:11, 신명기 34:10) 하나님의 뜻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가장 권위 있는 대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경은 구약의 다른 부분들과 함께 성서의 필수 요소입니다. 오경을 선명하게 이해할 때,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심지어 신약까지 올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는 구약 성서의 다른 어느 책들보다, ‘모세’의 권위 있

는 가르침(오경)을 더 많이 인용하거나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성경의 처음 다섯 권의 책이 비록 법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에서 다루고는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를 하나의 연속적인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아브라함과 모세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며 또 다른 은혜가 보일 것입니다.

다윗왕가의 역사 이야기: 역사서

역사서는 오경 다음을 이어가는 여호수아, 사사기, 룯기, 사무엘서,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를 묶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역사서의 핵심적인 주인공은 다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500년 역사를 말해주며, 그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어떻게 왕국을 이루었고, 또 왜 패망하게 되었는가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역사를 재해석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기준이 여호수아 1:8에 언급된 대로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확인해보는 것 역시 역사



서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결국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왕의 평가는 악한 왕으로 기록되며, 말씀대로 행한 왕은 정직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기준이 말씀인 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므나셋, 요시야 등 왕을 평가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합니다. 순종하는 왕은 승승장구하지만, 불순종한 왕은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과적으로 실패하여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읽는 법

모세오경을 읽는 팁은 모세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모세의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머물며, 율법을 정리하며, 광야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읽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지점인데,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까지 예배의 태도, 삶의 규범, 행진의 방법 등 광야에서 필요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 광야 앞에 서 있을 준비를 갖추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상상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앞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읽을 때, 더 선명하게 말씀이 보일 것입니다. 이 모든 규정을 정리하는 듯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 (Deuteronomy)’이라는 제목처럼 재정립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이야기를 신명기는 설교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마지막 유언이자 설교로 율법을 정리해줍니다. 오경을 압축한 이야기가 신명기를 통해 모세의 설교로 선포됩니다. 광야를 떠올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으로 모세오경을 읽으면 그 의미가 더 선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만남**



김충섭 목사
강동·송파교구
제자양육훈련부

누가 만물의 영장인가?

우리는 영장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잘 모를 때부터 인간은 만물의 영장(Lord of all Creations)이라고 배운다. 모든 피조물들을 주인 노릇하며 다스리는 최고의 지위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말을 들으면 자부심이 잔뜩 부풀어오른다. 과연 인간은 만물의 주인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을까?

주인 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지구의 주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지 식물과 다른 동물에 대한 지배력뿐 아니라, 지구를 잘 보살피는 데에 필요한 덕목도 잘 갖추어야 한다. 가장이 대우를 받으려면, 다른 식구들을 물리적으로 지배만 해서는 안 되고, 집안의 경제와 안전 등을 고려하며 다른 식구들이 어느 정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하듯이, 인간도 지구의 주인으로 대우받으려면 지구상의 생물들이 균형 있고 조화롭게 지낼 수 있게 잘 돌보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인류가 과연 지구라는 자연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회의를 품는다. 지난 35년만 보더라도 인간의 환경파괴에 의하여 지구상의 생물종의 1/3이 사라진 것으로 WWF (World Wildlife Federation)는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화석연료 과용과 그에 따른 온난화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데, 국가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며 문제해결에 전혀 진지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 지도 오래 되었다. 인간을 만물의, 자연계의 영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점점 의심스러워진다.

인간을 주인답지 못하고, 지배와 종속이라는

딱딱한 관계 속에 몰아넣는 데에는 인간의 탐욕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리고 그 탐욕은 인간 밖의 자연환경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 서로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는 사람들이 집단생활을 하며 사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이 떠돌기를 멈추고 농경사회에 정착하며 성적 대상을 찾기 위한 경쟁이 시작된다. 타인에게 자신이 매력적으로 보이는가가 중요해지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되어 결국 자신의 본연의 진실한 모습으로부터 멀어져 간다. 타인과 경쟁하며 남들 눈에 비치는 모습에 몰두하면서 경쟁대상자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는 데에 집착하면서 타인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문화의 시작이다. 경쟁력이 인간의 지배/피지배의 구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사이의 갈등은 심화되고 인간은 낙원으로로부터 더 멀어진다.

거의 400년전 한 철학자가 한 말이지만 오늘에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찌른다. 우리가 잃어가는 본연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

을 잃어가며 동물의 왕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 요소들이 자리잡고 있다. 다른 동물들처럼 쾌락을 쫓는 욕망이 있다. 이 욕망을 효과적으로 만족시키는 방법을 찾기 위한 영리함에 있어 다른 동물들보다 월등하다. 그러나 욕망도 지능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지 않는다. 인간을 인간답게, 인간을 동물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양심이다. 나의 쾌락과 이익을 위하여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줄 때 나의 내부에서는 경고등이 들어온다. 동물들은 자기 집단의 이익과 충돌하는 다른 집단에 대하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한 행위를 하고서도, 후유증을 앓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남에게 가한 행위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린다.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조차도 마찬가지다.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양심은 사회적 규범에 의하여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문화와 사회적 규범에 우선하여 규범을 만들어나가는 동력이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한다(디모데 전서 1:5). 우리는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도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이 준 선물인 양심을 소중히 여기고, 여기에 마음을 청결히 하고 믿음을 다지는 훈련을 더할 때, 사랑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욕망과 탐욕을 목적으로 하는 삶은 끝없는 갈구의 수레바퀴로 우리를 몰아넣는다는 것은 심리학적 연구에 의하여 잘 알려져 있다. 장난

감에 흥분하여 좋아하던 아이가 몇 번 가지고 놀다가는 싫증을 느끼고 새로운 장난감을 찾듯이, 욕망은 인간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 보다 쾌락의 쳇바퀴에 머물러 끝없는 결핍으로 이끈다. 물론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이 가르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천이 이루어질 때 개인의 행복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도 주목할만하다.

코로나 시대 생존의 문제가 절박해지고, 경쟁은 삶의 구석구석으로 다가온다. 양심과 사랑의 메시지가 절실해지는데, 기독교를 향한 비판은 더욱 거세다. 마치 기독교에 대하여 비판을 해야 지성인처럼 보이는 듯한 세태다. 이 기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유익을 넘어 양심과 사랑의 메시지에 얼마나 충실하였는가를 되돌아 보아야 하겠다. 모든 피조물의 주인(만물의 영장)이 누구인가를 되돌아보고, 그 주인이 우리에게 준 양심을 소중히 키워 사랑으로 발전시켜야겠다. 양심과 사랑의 불꽃을 지퍼 탐욕으로 기울어가는 삶에 균형의 메시지를 던져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향한 발길을 내딛는 것이 기독교인의 소명이 아닌가 싶다. **만남**



김기현 교수
서울대 철학과

다음세대, 기독교 교육이 해답이다

주거-보육-교육 문제로 출산 꺼려

근현대사 발전 이끈 교회 교육 경험살려

신앙과 실력 겸비한 인재 키우자

주중 방과후 학교 - 기독교 대안학교 해볼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소용돌이가 일 년을 넘게 전 세계를 휘감고 있다. 백신, 치료제 등으로 머지 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코로나19 이전의 세계로 완전히 복귀할 것이라고 믿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어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은 가장 큰 피해는 무엇일까? 연일 산업 전 영역에 걸친 경제적 피해에 대한 뉴스가 들려오지만, 경제적인 피해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소실은 바로 다음세대, 우리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팬데믹 이전부터 0.92명(2019년 기준)이라는 충격적인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던 대한민국이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가 우리의 미래 세대인 것은 분명하다.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젊은 부부들이 자녀 갖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거, 보육, 교육 이 세 가지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문제 중에 주거와 보육의 문제는 정부 정책과 예산 정책으로 해결해 갈 수 있지만, 교육의 문제는 그

리 간단치 않다. 한 사회의 문화와 가치, 사회 전반의 시스템과 깊이 관련된 문제이며, 세대와 세대를 가로지르는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변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지 않은 불행한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국에 3,832개의 학교가 문을 닫았다. 농어촌 지역의 학교들이 폐교되는 것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이제 대도시, 심지어 서울에서도 학교가 문을 닫거나 인근 학교들과 통폐합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대학들은 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2021년 대학 입시에서 지방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2만 명이 넘는 다. 수도권 대학들도 간신히 정원을 채우기에 급급한 현실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 교회는 더 빠른 속도로 다음세대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수년 전 한 교단 조사에서 전체 소속 교회 중 50% 이상 교회의 주일학교가 사라졌다는 통계가 발표되었고, 매년 주일학교 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뉴스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소식처럼 들려오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1년 이상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현실 끝에 예배가 정상화되더라도 얼마



CTS기독교TV는 '다음세대가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세상을 만든다'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방송 편성의 50%를 다음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고 있다. 사진제공 CTS기독교TV

나 많은 학생이 주일학교에 돌아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익히 알려진 대로,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미친 공헌 가운데 가장 큰 분야가 바로 교육이다. 오산, 배재, 이화, 정신, 경신 학교 등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기독교 학교에서 배출되어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들이 광복의 주역이 되었고, 전쟁의 참화 속에 유례없는 경제 발전을 이룬 밑바탕에 한국 교회의 교육 선교가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민족의 가장 어둡고 가난했던 시기에, 다가올 미래를 위해 인재 양성에 모든 힘을 쏟아온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초석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미래, 한국 교회의 미래는 분명 다음 세대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래를 위한 투자는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를 교회가 학교를 통해 길러내야 한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기독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크리스천 인재를 키워낼 적기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에 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가 우리의 미래를 30년 이상 앞당겼다고 진단한다. 그만큼 미래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인공지능, 로봇, 온라인/비대면 시대로 상징되는 미래는 이제 미래가 아닌 바로 우리의 현재이며, 우리의 다음세대가 살아갈 세상이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공교육의 획일화된 교육과 경쟁, 대학 입시라는 허울 속에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 창의적 교육과 혁신을 누구나 외치고 있지만, 실제 공교육의 장벽을 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나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적기라고 확신한다. 기독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인성과 영성, 실력을 겸비한 인재들을 키워낼 기회가 열리고 있다.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주일 학교로 다음세대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 방과 후 학교’ 또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 공교육에서 할 수 없는 신앙 교육, 창의 교육, 독서 훈련, 예체능, 코딩(coding) 교육 등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 수 있는 교육에 교회 공간과 재정을 투자한다면 다음세대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뿐더러, 시대를 주도하는 인재들이 교회를 통해 다시 배출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 교회 한 학원 운동’을 통한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

CTS기독교TV는 지난해 설립 25주년을 맞아 ‘다음세대가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세상을 만든다’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한 교회 한 학교 운동’을 펼치고 있다. 교회가 다음세대를 위한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교육 선교를 더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 편성의 절반 가까이를 다음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세대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기독교 대안학교들과 협력하여 기독교 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회와 기관, 가정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100여개 교회를 대상으로 대안학교 설립 상담을 진행했고, 2020

년 말부터 현재까지 5개의 대안학교가 개교했다. 지금도 많은 교회와 협력하여 대안학교 설립을 돕고 있다.

물론 공교육을 개혁하고 바르게 세우는 일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진화론, 동성애 등 반성경적인 가치가 점점 공교육의 흐름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직접 나서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내야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책임이다. 실제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이러한 인재 양성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필자는 직접 경험하고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CTS기독교TV를 통해, 기독교 대안교육을 통해, 행복한 학교에서 자라고 있는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다음세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를 강권한다.

교육이야말로 백년지대계이다. 지금 투자하는 시간과 재정의 열매는 30년, 40년 후에 나타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분명히 미래를 위해 한국 교회와 모든 기성세대가 다음세대를 위해 투자해야 할 때이다. 다음세대가 한국 교회 안에, 대한민국에 큰 숲을 이루는 세상을 꿈꾸며, 지금 한 알의 작은 밀알을 심어야 한다. **만남**



감경철
CTS기독교TV 회장
광림교회 원로장로

유튜브 봄맞이성경학교 재밌었어요

하이캡틴이란 주제로 2021년 봄맞이 성경학교에 참여 했어요. 유튜브로 진행되는 봄맞이 성경학교가 궁금하고 기대 됐어요. 예배로 시작하고 목사님의 말씀이었던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된 이야기도 기억에 남아요. 또 전도사님들께서 내주신 쿼즈도 맛있고 스파게티도 만들어 먹고 라디오 사연도 뽐해서 열렸지만 전화통화도 하고 재밌었어요.

봄맞이 성경학교를 통해 캡틴이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준비해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감사해요.

코로나가 없어져서 다음에는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하윤 유년부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사랑부(부장 김명철 장로) 온라인 봄맞이성경학교를 시작한 날은 맑고 따스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화창한 날씨여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랑부 친구들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올해 봄맞이성경학교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라는 주제로 지난 2월 27~28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매년 사랑부 봄맞이성경학교는 긴 겨울의 끝자락에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친구들이 서로 이끌어 주고 손을 잡아주며 함께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부 친구들은 온라인 활동이 쉽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영채 목사님께서 계획하신 상세 일정을 보고 걱정보다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감사하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봄맞이성경학교 주제 말씀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기 42:5) 이 말씀이 답답하게 지내고 있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저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첫째 날 여는 예배 말씀은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제목으로 진 목사님이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으며 많은 복을 받은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었을 때 욥에게 잘못을 회개하라고 하는 친구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지만, 끝까지 잘 견뎌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우리도 삶이 힘들어서 실망과 좌절을 겪고 있지만, 욥처럼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이 보고 싶은 간절함으로 눈과 마음을 열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힘을 얻고 나아가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암송 댄스대회’는 즐겁고 은혜로웠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1월, 2월의 말씀 암송 댄스 영상을 감상하면서 사랑부 친구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의 멋진 댄스는 모두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온몸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사랑부의 은혜로운 온라인 간식 시간은 풍성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전달한 쿠폰을 이용하여 동시에 같은 간식을 나누면서



학생들은 행복하게 봄맞이성경학교 첫째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둘째 날의 단어 예배는 ‘친구가 되어 주신 예수님’(누가복음 19:10) 제목으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삭개오를 찾아와 친구가 되어 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창근 전도사님이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인정해주셨으며 구원해주셨습니다. 친구는 기쁨만 아니라 아픔, 슬픔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가 많은 사람을 기다리고, 외로운 이들에게 다정하게, 힘없는 이들은 업어주시며 우리의 등불이 되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친구가 되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서로 진정한 친구로 다가가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겠습니다.

‘교회탐구생활’ 활동을 통해 교회의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자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으며 교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화감상’ 활동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영화를 감상하며 영화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감동했습니다. 사랑부 친구들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부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지금의 상황이 힘들지만, 비대면 예배 상황에 적응해 나가는 중입니다. 온라인 봄맞이성경학교에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만남**



홍성매 집사
인천교구
사랑부 교사

‘지저싱어게인-다시 예수님을 부르다’

이영호 목사 _ 중등부

2021 중등부 겨울수련회는 ‘지저싱어게인 - 다시 예수님을 부르다’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온라인 수련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청소년의 영상 집중력이 15~20분밖에 되지 않기에 ‘아이들이 두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온라인 수련회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예배 시간을 대폭 줄여서 짧고 임팩트 있게 가야 할까?’, ‘혹시 아이들이 들어왔다가 30분 만에 나가버리면 어떡할까?’ 수련회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준비를 잠시 멈추고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제 안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확신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장에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예배 자리에도 임하실 것이다. 온라인 수련회의 한계를 나 스스로 정할 것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준비하자’.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3주간의 준비기도회를 통해 교사들과 이 마음을 나누며 함께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중등부장으로 섬기시는 김지언 장로님께서 참여 인원을 몇 명으로 목표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주일 예배 참여 인원이 300명 정도이니, 300명이 목표라고 겁도 없이 선포했습니다.

다. 온라인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150~170명을 목표하는 것이 이성적이겠지만, 제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했기에 300명으로 선포했습니다. 300명에게 보낼 수련회 용품과 선물을 준비하는 중에 수련회 팀장님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이왕 300명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니 358명의 재적 인원 모두에게 보내서 참여를 독려하여 예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이 아이디어에 동의하여, 358개의 선물상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보린원 친구들에 대한 걱정이 생겼습니다. 보린원에 있는 다섯 명의 중등부 아이들에게만 선물을 보내면, 나머지 45명과 나누어 먹자니 양이 너무 적어서 아쉬울 것 같고, 혼자 먹자니 서로의 마음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답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보린원 친구들 모두에게 선물을 보내자. 서로 눈치 보지 않게, 서로 눈치 주지 않게, 모두에게 선물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동일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중등부는 사랑이 더 필요한 아이들, 그리고 예수님과 멀어져 있던 아이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 중등부 선생님들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온라인으로 진행된 수련회에서 「캠핑 인 더 처치」를 진행하고 있는 필자(오른쪽 첫번째).

전달되길 바랐습니다. 코로나 이후 정말 오래
간만에 모든 교사가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선
물을 구입하고 포장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원하는 아이들의 심방 신청을 받아 교사들이
직접 집 앞으로 배달하고 맛있는 간식을 사주
며 아이들과 즉석 만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선
물이 도착한 날 몇몇 아이들에게 문자를 받았
는데, 대부분 그동안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는
데 선물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
께 수련회도 참여하고 앞으로 예배도 잘 드리
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비록 목표로 정한 300명에는 이르지 못한
262명이 참여했지만, 작년 겨울 수련회보다
110명이 늘었습니다. 아이들은 프로그램과 예

배 시간 내내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이번 수련
회를 통해 온라인 수련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등부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로서 댓글을
통한 활발한 소통이 자연스러운 세대라는 것
이었습니다. 현장에 모이지 못했지만, 댓글을
통해 계속 소통하며 반응하여 ‘아멘’으로 믿음을
고백했고, 그동안 나서는 것이 부끄러워서
표현하지 못했던 아이들도 자신들에게 익숙한
채팅을 통해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
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학원으로 인해 정시에 참여하지 못한 아이들
은 집에 돌아와 업로드된 영상을 보며 참여할
수 있었고, 몇몇 아이들은 ‘자신에게 와닿았던

부분을 돌려볼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았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학원 공부로 인해 수련회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던 아이들도 온라인이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녀의 수련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감시하듯 옆에 앉아 계시던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요리하며, 토론을 통해 아이들과 대화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끌어안고 기도하니 중등부 수련회가 아닌 가족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온라인 수련회를 진행할 수 없는 미자립 교회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었고,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링크를 보내 함께 참여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중등부 광영진 전도사가 '편스토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시작한 온라인 수련회였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라인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간을 뛰어넘어 아이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시간 수련회예배, 하나도 안 길었어요

이번 중등부 겨울 수련회는 온라인으로 열렸다.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주제들이 신선했다.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수련회여서 정말 기대가 되었다.

첫째 날, '레크리에이션'으로 진행된 여러 가지 게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임은 '양세찬

게임'이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의견과 질문도 반영이 되면서 재미있기까지 한 데다 별칭 때문이다. '편스토랑'은 초간단 스파게티부터 전 자레인지 계란밥 그리고 라면땅 등 진짜 참신한 주제였다(위 사진). 수련회 신청을 안 한 집에도 음식 재료들을 모두 보내주신 점이 정말

좋았다.

같은 시간에 만들고 먹으니 정말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예배’도 굉장히 감명 깊었다. 평소 주일 예배는 1시간 정도 하는데 수련회 예배는 2시간이나 했지만, 전혀 길다거나 지루하지 않고 더 집중도 잘되고 더 은혜로웠던 시간이었다.

둘째 날, 토요일 첫 주제였던 ‘끝장토론’은 정말 웃기고 엉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재미있게 토론했는데 너무나도 기억에 남았다. ‘캠핑 인 더 처치’는 정말 캠핑 온 것 같은 인테리어와 실제 캠핑에서 먹는 음식들을 가지고 재밌게 대화를 나누었다. 온라인이라서 너무 아쉬웠고, ‘현장에 있었으면 얼마나 더 재미있었을까?’ 생각했다. 토요일 ‘예배’는 뭔가 웅장한 느낌이 들 정도로 좋았고,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느껴져서 정말 좋았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여운이 가시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수련회 마지막 날 예배, ‘달을 닮은 우리’에서 개기월식과 개기일식을 알려주시면서 삶과 관련하여 설교하셨는데 정말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에 잘 남는 설교 내용이었다.

나중에 또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한다면 더 열심히 참여할 것 같다. 온라인수련회라서 준비가 정말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진행과 준비 덕분에 정말 재미있었다. 나중에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오프라



인 수련회에서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 및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친구들과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길 기도해야겠다. **만남**



김예린
중등부 2학년, 기자단

선교 역사의 ‘걸어온 길’을 넘어 ‘걸어갈 길’을 모색합니다

선교비전은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교환경의 변화에 따른 선교 방법은 시대 및 세대 변화, 즉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통에 매여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발을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올해 영락교회 표어는 “눈을 들어 발을 보라”입니다. 우리는 먼저 눈을 들어 선교부의 사명과 선교부가 ‘걸어온 길’ ‘걸어갈 길’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심재수 장로(사진 왼쪽)는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40년 이상 기업 활동을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가다. 2006년 선교부 서기로 봉사를 시작한 뒤 영락교회 선교 역사의 ‘걸어온 길’을 넘어 ‘걸어갈 길’을 모색하고 있다. 홍보출판부장 양지청 장로가 심재수 장로에게 우리 교회 선교부 사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물었다.

영락교회 선교부가 걸어온 길을 소개해주시지요.

영락(永樂), 영원한 기쁨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통일을 향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국내외 선교활동을 견인해왔습니다.

국내선교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역 교회 개척과 지원, 그리고 군 선교이지요.

먼저 지역 교회 지원으로, 전국에 6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거나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노후된 교회의 리모델링과 농어촌 교회의 자립형 모델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시험적인 기반 조성 사역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총회의 노회에 속한 미자립 농어촌교회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선교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한경직 목사님의 ‘군선교를 통한 민족복음화’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총회군선교후원회’(회장 김운성 목사)를 결성하여 영락교회가 중심적인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0만 국군을 그리스도에게로’를 목표로 전국에 총 1,004개 교회 중 650여 개의 군교회를 세우고 군복음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16개 국가를 중심으로 구축된 해외선교 네트워크

해외선교는 1955년 태국에 최찬영 선교사 파송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 16개 국가에 파송선교



영락교회 문화선교는 성경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문화 콘텐츠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은 창작뮤지컬 〈평양 1866〉 (2019.10)

사(7명), 협동선교사, 네트워크선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 선교현장에서 교회개척 지원과 협력, 전문사역자 육성, 문화교실 등을 운영하며 복음전파로 영혼구원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외국어 예배를 통한 선교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장·단기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이 참여하는 네팔, 몽골, 중국, 러시아 등 외국어 예배는 귀중한 선교사역자를 키우는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제로 전임 네팔예배 담당 목사였던 레크미 전도사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은 후에 본국 네팔에 돌아가서 카트만두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 고재영 선교사가 운영하는 제자훈련센터를 졸업한 투언 학생이 현재 장신대에 유학 중인데, 앞으로 베트남어 예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문화선교 영역을 앞서 개척해왔습니다

1998년에 시작한 문화선교는 성경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에 복음의 메시

지를 접목하여 절기와 행사에 맞추어 교회 내외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문화선교는 때와 장소를 넘어서 온·오프라인으로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서 문화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소중한 선교의 통로입니다. 올해는 창작뮤지컬 ‘한경직’을 자체 기획해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다양화하는 사회 환경과 스마트폰 등으로 점점 빠르게 세속화되는 세상을 바라볼 때, 빛과 소금이 되는 문화선교 콘텐츠와 사역 개발에 역점을 둘 때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세대 젊은이들을 지속해서 발굴 육성하여 문화선교 활동을 통해 은사를 발견하고 헌신된 인재로 발전시키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계적인 예술 전문인 선교사역자로 성장하는 문화선교사를 기대합니다.

선교 현장에는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선교 분야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대처하시는지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놓여준 교회들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현실에 노출되었지요. 다문화가정

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집해 있는 농어촌 지역교회를 지원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고 양육하는 일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한국에 대한 선한 인상과 본국의 현지 선교사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역점을 두고 검토할 과제입니다.

또 군선교도 시대 및 세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때입니다. 자율적 종교 선택, 복무기간 단축, 자율시간과 자유로운 외출, 개선된 생활관, 휴대폰 사용 등 병사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군부대교회 안에 휴식을 위한 카페를 운영하고 음악 활동을 돕는 음향장비, 악기와 체력단련기구 등 친밀한 군 교회 조성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완공된 백마부대 백마누리교회는 이러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었습니다. 올해 완공하는 56사단 221연대 푸른성림교회는 야외 휴게실을 마련해서 주님 안에서 쾌적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 현장도 예전과 매우 달라졌지요? 기독교사학에서 기독교교육도 학원선교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에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인사권과 자율성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학교 건학이념의 정체성과 자율성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근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운성목사님)’를 확대 발전시킨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출범했습니다. 기독교사학의 정체성과 건학이념을 수호하고 기독교학교의 발전을 이끌어 갈 학원선교의 사명을 위해 눈을 들어 깨어 있을 때라고 봅니다.

해외선교는 현지화와 재정 문제 등이 다양하게 중첩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파송선교사가 현지화되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제한된 자원과 재정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해외 선교의 새로운 접근법에 주목하기를 제안합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작년 기준 222만 명입니다. 총인구 대비 4.3%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OECD는 총인구 중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합니다. 우리도 바로 코앞에 와있는 거지요.

국내 외국인들을 거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60% 정도 있습니다. 영락교회도 눈을 들어 선교의 새로운 발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섬터를 중심으로 외국인 선교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선교 사명자로, 또 영락교회 현지 파송선교사의 협력사역자로 활동할 수 있는 비전을 품어 봅니다. 또 평신도선교사 육성과 파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1국가 1인 선교사 파송 조직으로는 역량과 협력 사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육성 등 전교인에게 선교적 마인드 확산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선교에 관해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2021년 상반기에는 각 선교사역을 시대와 세대의 흐름에 맞추어 ‘유지사역’ ‘확대사역’ ‘중단사역’ ‘신규사역’으로 검토하고 분류하고자 합니다. 각 사역의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을 합리화하고 재편성하는 방안을 지속 검토해, 그 결과를 하반기 정책당회에 ‘선교부가 걸어갈 길’로 보고한 후에 교회 절차에 따라 2022



인도네시아 바탐 진승학원 영락관 준공 (2019.7)



군선교는 청년선교의 황금어장이다

년도 선교사역과 예산편성의 방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선교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신앙의 기본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VR, AR,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다문화, 포스트코로나 시대 등의 용어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이 시대를 말해주는 언어들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상뿐 아니라 교회와 신앙생활의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여러 현실을 바라보며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 기본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 출발점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세대인 젊은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음세대에 무엇인가를 바라고 요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 세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

사에 의하면 젊은 층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젊은 층을 위한 ①문화적 차이의 이해 ②신속한 의사소통 ③권위주의 타파 ④전문사역자 양성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디지털 혁명기에 성장한 세대로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고 부르고, 기성세대를 빗대어 ‘라떼는 말이야(Latte is Horse)’라고 합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훈육할 대상으로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귀를 열어 이해하고 손을 내밀어 줄 때 소통과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탄식과 침묵까지도 들으려고 애쓸 때 그들의 눈과 마음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게 되지 않을까요.

선교부 조직에는 부부선교회와 청년선교회가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지나온 환경과 확연히 다릅니다. 부부 맞벌이와 공동육아의 세대입니다. 다음세대를 위해 그들의 소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잘 경청하여 먼저 교회 공간 등 여건과 편의를 우선해서 배려하고 세워서 젊은이가 부흥하는 영락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하나님의 은혜: 의료인으로 성장해가는 잠비아의 딸



나타샤 므통가 _ 대학부

안녕하세요,

저는 잠비아에서 온 나타샤 므통가(Natasha Mtonga)입니다. 저는 잠비아에 있을 때부터 지금 한국에 있기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1999년에 장로교 가정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에 관해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제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항상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등학교를 마친 저에게 영락교회에서 잠비아로 파송한 김서영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김서영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많은 도움의 손길을 경험했으며, 2018년 3월 장학금을 받고 한국에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한국에서의 저의 첫 장소는 대구에 있는 영남이공대였습니다. 그곳에서 11명의 다른 잠비아 학생들과 함께 1년간 한국어를 배우는 코스를 수료

했습니다. 의료과학을 배우고 싶은 꿈이 있었으나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2년간 화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공부를 마친 후 의학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영남이공대를 졸업하고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화여대 간호대학에 합격하여 지금 의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안전했고, 꾸준히 전진했습니다. 후원과 지원을 받았지만,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며 생활하는 중에 너무 많은 도전과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모든 고난은 이미 끝났다.” 그렇기에, 제 앞에 주어지는 모든 고난 속에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믿으며 매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33)

저는 2월 말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제



대구 영남이공대학교 졸업 (2021년 2월)



한국 도착 - 인천공항 (2018년 3월) 왼쪽 두번째가 필자

가 꿈꾸던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주 큰 선물입니다. 저의 비전은, 석사를 마치고 잠비아의 의료기관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병원을 세울 수도 있고, 혹은 간호학을 가르치기 위해 잠비아에 의과대학을 세울 수도 있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저의 삶 가운데에서도 함께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서울에 와서는 김서영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영락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2월 28일에 처음으로 영락교회 대학부 예배에 참여했는데, 대학부의 한 청년이 제 숙소까지 데리러 와주었고, 교회를 안내하며 많은 대학부 성도들에게 저를 소개해주었습니다. 대학부에서 만나는 모두가 저를 진심으로 반갑게 환영해주는데, 마치 영락교회라는 하

나님의 집이 저 자신의 집인 듯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영락교회에서의 첫날은 아주 근사했고,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영락교회로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제 신앙이 더욱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영락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시편 136:26)

아멘!

감사합니다. **만남**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어린 시절 새벽이 생각납니다.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면 제 머리맡에 오셔서 이마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셨던 기억입니다. 차가운 손이 닿을 때마다 흠칫 놀라 켜었습니다. 어렸을 적엔 왜 잠을 깨우시나 했지만, 서서히 나이가 들며 그것이 으레 기분이 좋아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마 어머니께서는 하나님께, 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 굳건하게 신앙을 가지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 잘 쓰임 받도록 기도하셨겠지요.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과하게(?) 응답하셨는지, 지금 저는 영락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필립 안시의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솔깃하지요? 마치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긴 할까요?”라는 의문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책의 내용은 부정적인 제목의 내용과 달리, 기도에 대해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목은 저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기도가 과연 힘이 있을까?’라는 의문은 실제로 기도를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 가지는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용인·화성교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구를 섬기기 전 2년 동안 교육부에서 준전임으로 섬겼을 때, 5월 전가족 주일에 성도님들로 가득 찬 베다니광장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북적북적 하던 교회의 모습을 뒤로 한 채 작년부터 교구를 섬기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었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교회의 사역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면심방도 멈



췌고 원래 예정되어 있던 사역들 또한 많이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도 멈추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기도요청이었습니다.

교구를 섬기게 되니 많은 기도요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구 내에 환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역장님이나 성도님들이 기도요청을 해주십니다. 심방을 가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직접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력이 되면 전화로나마 기도를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은 다양합니다. 수술을 앞두거나, 몸이 편찮으실 때 요청하십니다. 물론 환우뿐 아니라 삶의 여러 과정을 둔 기도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제목들을 들을 때, 그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기도를 뜻하는 prayer의 어원은 라틴어 precarius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을 가리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란 의지할 곳이 없어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절박함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참 기쁜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프신 부분들이 나아지셨다는 소식입니다. 삶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해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위태롭고 절박한 순간을 지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 참 기쁩니다. 부끄럽게도 가끔 기도를 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에도 주님께서서는 일하고 계셨고, 도우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될 때, 마음속에 감사함이 생겼습니다.

성도님들께 이렇게 기도요청을 받고 나면, 으레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이 말은 사실 상투적으로, 습관적으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말을 하지 말자는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에 진심을 담을 때에는, 그 어떤 말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마다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게 됩니다. “그래, 정말 기도

해야지”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한창 심했을 때, ‘올해는 나아지겠지’ 하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멈추지 않는 상황이고 이제는 다들 점점 지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역 또한 이전과 같이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제 올지, 참 갑갑하고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기도입니다. 특별히 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라는 물음에, 저는 분명히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당장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기도를 멈출 수 없고, 더욱 더 기도를 해야 할 것 입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라는 질문을 들으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저는 이렇게 말하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교우들이 있다면 연락해 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만남**



유태완 전도사
용인·화성교구
사회봉사부



그리운 구역예배

덜컹 세워진 구역장

2006년 말 구역장을 맡아 달라는 전화를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하고 구역장으로 덜컹 세워졌습니다. 사실, 저는 뻔질이 구역원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구역은 한 달에 한 번 구역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구역 관찰이었음에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15~17가구가 널리 흩어진 지역인데 우리 집 근처의 4가구에 만남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맡은 바 일을 다 하였다 생각했지요.

2007년이 되자 진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넓은 구역을 운전도 못하는 내가 만남지나 제대로 돌릴 수 있을까? 구역 내에서 그 누구보다 연륜도 신앙의 내공도 부족한 내가 구역원들을 잘 보살필 수 있을까? 구역예배는 어떻게 인도할까?

매주 구역예배로 모이다

미국에 사는 시누이와 통화 중에 고민을 털어냈습니다. 시누이는 매주 구역예배 요일과 시간을 고정해 두고 모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구역원들 대부분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구역예배 드리기 힘들었는데 가능할까? 의문이 들었지만 구역원들과 의논하여 화요일 저녁7시로 요일과 시간을 정했습니다. 제가 늦둥이가 있어 저녁시간에 집을 비울 수가 없어서 장소는 자연스럽게 저희 집으로 정해졌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에 구역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 못하는 분들이 더 많았지만 매 주 2~6명의 구역원들이 모여서 구역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참석 못하는 분들도 우리와 같은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모일 때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참석 못하는 구역원들에 대해서도 친밀감이 커졌습니다.

구역예배 자체는 단순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한 목소리로 하고 찬송, 구역장 기도, 말씀 나눔(금요권찰 공부한 내용을 구역장이 나



강혜영 권사
인천교구 37구역장

눔), 구역원 중 한 분이 마침기도(구역원들께서 펼 린다면서도 은근 기다리는 순서입니다.)로 마치고, 차를 나누며 교제 합니다. 아무 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누누이 부탁드려도 하나씩 들고 오신 다과가 언제나 한 상 가득입니다.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푸념도 하고, 음식도 함께 먹고, 기도 부탁도 하면서 사도신경의 성도간 교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안 보면 궁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개강 예배와 종강 예배 날은 제가 집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해서 함께 먹습니다. 종강 예배 때면 매주 만나고 말씀 듣고 하고 싶은데 방학하지 말자고 하십니다.

함께 누리는 은혜와 기쁨

10년 동안 몇 번의 유산을 경험하고 새 생명 주시기를 기다리는 젊은 집사님이 아이를 가지게 되어서 눈물 흘리며 다 같이 기뻐한 일도 있었고,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던 집사님의 남편이 23년 만에 교회에 출석하는 기적 같은 소식에 춤을 추며 함께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해에는 구역원 한 분이 특별히 중국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구역예배 때마다 각자 천 원씩 헌금을 하라고 하셔서 1년 동안 모아서 선교부에 전달했습니다. 천원 한장 한장이 기도문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인데 천원짜리로 봉투가 두둑한 것을 그대로 전달한 기억이 납니다.

달라진 상황에 우리 구역은?

2011~2016년 구역장을 내려 놓았다가 2017년부터 다시 구역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사이 구역원들 사정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계단을 못

내려 올 만큼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멀리 이사 간 분도 계시고 스케줄 근무인 직장에 들어간 분도 계십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매 주 모이는 구역예배가 옛말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말씀대로 365> 묵상 영상을 톡으로 보내 드리는 것과 가끔 전화 심방으로 구역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아지셔서 혼자서는 교회에 출석 못하시는 분들은 구역예배가 교회와 연결 끈이라 여기시는데... 지금의 상황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교회 출석은 못해도 여전도회비는 항상 내신다는 96세의 최 집사님, 직장생활 하면서도 매일 아침 성경 3장씩 필사하고 출근하던 또다른 최 집사님, 은퇴 후에 계양산 등산하며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던 우리 구역 기도 대장 김 집사님, 앓아있기도 힘드신데 <말씀대로 365> 성경통독 하시다 몸살 나서 누우신 임 집사님, 매일 <말씀대로 365>로 남편과 서로 성경읽기 체크하신다는 오 집사님, 안 읽는 듯 하시면서 말씀 보내 주셔서 고맙다고 뜬금없는 댓글로 감동 주시는 정 성도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 제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라고 고백해 주는 조 성도님, 교회를 떠난 듯 보여 늘 기도 제목인데 매일 듣지는 않아도 듣고는 있어요라고 말해 주는 김 성도님, 집에 눈길도 못들여 놓게 하시다가 이제는 늘 집에 들어오라고 이끄시는 주 집사님, 묵묵히 구역일을 도와 주시는 곽 집사님, 우리 모두 삶의 자리에서 각자 예배 잘 드리고 있다가 어느 화요일 구역예배 함께 드려요. **만남**

“이상한 하나님, 이상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손님인가?

작년 12월 13일 주일예배 설교시간에 위임목사님께서 ‘이상한 하나님,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중에 ‘어느 권사님이 토요일에 유아부예배실 바닥을 손걸레로 열심히 닦고 계셨는데, 대걸레로 편하게 청소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곳이니 까 우리 집 안방보다 더 깨끗이 닦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대걸레가 아닌 손걸레로 구석구석 닦아야 한다며 힘들게 손걸레질 하던 권사님’의 예화를 소개해주셨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75년 전 신앙의 선배들이 금가락지와 숨이불을 바치고 몸소 돌을 나르며 건축한 성전입니다. 그때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계신다면 위 예화의 권사님처럼 교회 예배당과 부속 건물들을 몸소 끌고 닦으며 깨끗이 청소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부속건물들이 세워지고 청소할 방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지금 우리는 교회 청소를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편안해졌지만, 교회에 오는 것이 마치 남의 교회에 잠시 예배만 드리러 오는 손님의 입장이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세계적인 갑부들 중에는 자기 재산의 상당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로 존경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큰 벤처기업으로 성공한 사업가가 자기 재산의 절반인 약 5조원을 사회

에 기부하겠다는 하여 세간의 관심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 회사보다 규모가 훨씬 큰 재벌기업의 오너들이 기부한 금액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처럼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고 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이 같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앓은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사도행전 3:6)”고 하며 앓은뱅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갑부들만큼 재물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것 즉, 우리의 건강한 몸과 시간을 드려서 내 이웃과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신앙인의 자그마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내 교회, 내손으로 깨끗이

자원봉사부에서는 성도님들의 신청을 받아 4월부터 벤엘기도실(자모실, 개인기도실 포함)을 우리 스스로 청소하고자 합니다. 교회 내 본당과 여러 부속 건물을 동시에 청소하기 어려우니 단계적으로 청소구역의 범위를 넓혀 나가려고 합니다. 청소봉사 일시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2시간)입니다. 신청은 3월 28일 주일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홈페이지 사용이 불편하신 분은 자원봉사부 담당자에게 전



자원봉사부 봉사자들이 뱀엘기도실을 청소하고 있다.

화로 신청해도 됩니다. 1회 청소봉사 시 4~6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같은 교구나 구역식구들, 소그룹 모임, 또는 가족 모임으로 신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김운성 위임목사님과 사모님도 따님 내외분과 함께 참여하실 예정이고, 어느 원로장로님은 제일 먼저 봉사를 희망하시어 4월 첫째 봉사일로 예약 하셨습니다. 권사회는 교구별로 봉사를 담당하고자 하며, 안수집사회는 임직기수별로 봉사에 참여 하겠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교회의 내일을 짊어지고 나갈 대학부와 청년부의 젊은이들이 교회청소 봉사에 적극 참여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두번의 기회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와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날이 있다면 그 날을 기억하며 교회를 청소하면 어떨까요? 세례 받은 날,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날, 집사, 권사, 장로로 임직한 날 등등.

자원봉사부는 지금까지의 교통봉사뿐만 아니라 이번엔 실시하는 청소봉사를 통해 교회 내 많은

필요(Needs)를 궁극적으로는 교인들의 헌신과 봉사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헌신을 통해 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과 공동체의식이 더욱 견고해지고, 성숙한 교인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며, 헌신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교회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한일서 3:18)”를 이번 교회사랑 실천 캠페인의 표어로 삼았습니다.

이제 바쁘다는 핑계 대신 시간을 잠시 내고, 몸을 움직여 교회를 깨끗이 하는데 앞장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귀한 시간을 내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번 청소봉사활동에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만남**



김종태 장로
강남교구
자원봉사부장

예배와 찬양으로 행복한 영락노인전문요양원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영락노인전문요양원은 한경직 목사님 10주기와 영락교회 65주년을 기리는 사업으로 2010년 12월에 개원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에 종사자 49명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장기요양 1~5등급 중 시설 등급을 받은 74명의 어르신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영락교회를 섬기는 어르신 및 가족의 입소 비율이 전체의 40%가 넘어, 영락교회를 섬기던 어르신들과 신앙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들었던 지난해는 우리 영락노인전문요양원이 10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가 어르신 요양 시설이라 가족 면회도 어렵고 어르신들의 두려움도 컸지만, 기도하면서 1년을 버텼습니다. 최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마쳤고, 어르신 접종은 4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문요양원은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집입니다. 적게는 70년, 많게는 90여 년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집을 챙겨 들어오십니다. 설레고 행복한 기대감보다는 낯선 환경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습니다.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 새로운 집을 향하는 마음이 어찌 두렵고 낯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최근에는 요양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음을 현장에서 느낍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의 마음에서 행복함과 자부심, 감사함, 사명감까지도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있는 집, 주님이 만들어 주신 집, 영락노인전문요양원에서 노후를 보

낼 수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신다고 어르신들과 가족들은 이야기 합니다.

전문요양원에는 예배와 기도, 찬양소리가 가득합니다. 새벽 5시, 한 분 두 분 일어나 세수하고 양치하고 꽃단장하고 인터넷 방송으로 매일 전해지는 <말씀대로 365>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오셨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은퇴목사님과 권사님이 주축이 되어 이곳에서 매주 구역예배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한 가족입니다.

영락교회 은퇴권사님이신 오○○ 어르신은 직원들의 기도 제목을 메모지에 일일이 기록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전도자의 삶을 보내는 중입니다. 혼자 월남하여 평생을 주님의 자녀로 홀로 살아오신 97세 김 은퇴권사님은 매일 제게 이야기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야 하니 건강 잘 챙기라오. 아프면 안 된다.” 저는 어르신들의 기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장 은퇴권사님은 “오늘은 얼굴에 그늘이 있네. 무슨 일 있어? 원장님이 우울하면 우리도 우울해지니 힘내라.” 고 하십니다. 제 두 손을 꼭 잡아주시며 “너무 오래 살았어. 그러니 얼른 하나님이 데려가 주면 좋겠어.” 하시면 “제 옆에 계셔야지 어디를 가시려고요.”라고 응석도 부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영적으로 든든한 힘이 되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분들은 보살핌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주님 안의 가족공동체로 살고 있습니다.

전문요양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기 전 삶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 (잠언 16: 9)

마무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 요양원이 가졌던 이미지는 그저 도움을 받는 잠시 거쳐 가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를 머물더라도 내 집에서 느낄 수 있었던 편안함과 안락함, 따뜻함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성경을 읽고 함께 찬양을 부르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함께 품고 서로 위로하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순간을 평화롭고 따뜻한 공간에서 또 하나의 영적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한 공간으로. 또한, 어르신들의 프라이버시와 서로의 취향과 인권이 존중 되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실천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집니다.

우리 영락노인전문요양원이 ‘유종의 美’를 이뤄낼 공간으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만남**

* 입소상담문의: 영락노인전문요양원 031)791-3729



최영순 집사
강동·송파교구
영락노인전문요양원장

한경직 목사님과 나

사랑과 겸손, 온유와 청빈의 사도 한경직 목사. 목사님은 20세기 한국 교회사를 대표하는 거목임과 동시에 우리 영락 성도들에게는 목사님의 호 추양(秋陽 가을 햇살)이란 말씀처럼 따스하고 소탈하셨던 큰 어른이었습니다. 성도들의 가슴 한 켠에 아련하게 남아있는 목사님에 대한 기억들을 지면에 모았습니다.

제대 후 (주)대농에 취직했는데 회장 박용학 집사와 사모님(김영도 권사)이 우리 교회 교인으로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대농 청주공장에 있는 대농교회 행사에 여러 번 참석하셨고 내가 안내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설교 말씀과 살아가시는 모습이 일치하는 분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함이 우리는 도저히 흉내도 내지 못할 정도입니다. 감사하게도 나는 영락사회복지재단의 감사와 이사직을 10여 년 맡아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변함없이 온화한 목사님의 웃는 모습, 다정한 음성은 마치 집안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하늘로 가신 2000년 나는 교회 사무처장으로 봉사했습니다. 2월 14일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신 4월 19일까지 교회 안에 마련한 임시숙소에서 2개월 가까이 목사님을 모셨던 기간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진유 은퇴장로_강서·구로·양천교구



1992년 목사님께서 템플턴상을 수상하시고 63빌딩 컨벤션홀에서 수상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수상 소감과 인사 말씀을 하실 때 “우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신사 참배한 죄인입니다.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신사참배의 괴로움과 가책에 대한 고백을 그 자리에서 하셨던 목사님은 참으로 진실하고 온유, 겸손한 분이시며 진정한 용기를 갖추신 어른이었습니다.

오창학 목사_신촌교회 원로



부모님은 초등학교 6학년인 나를 비롯해 6남매를 데리고 월남하셨습니다. 낯선 서울에 온 내가 갈 곳은 베다니교회뿐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을 처음 뵈고 너무 멋있는 분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도 크시고 항상 온화하게 웃으시는 모습

과 평안도 말씨까지 모두 그렇게 보였습니다. 목사님은 누구에게나 존댓말을 하셨습니다. 어린 우리들에게도 “교회오라유”하지 않고 “교회오라요” 하시던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중등부 교사를 할 때였습니다. 주일 아침 9시, 본당에서 앞자리는 중등부가, 뒷자리는 고등부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공부를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모든 교사를 토요일마다 오후 6시에 모이게 하시고 다음 날 학생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교육하셨습니다. 완벽하게 교육을 받고서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그 경험을 통해 교육자의 자세와 성실함을 배웠습니다. 목사님께서 임종하시기 얼마 전 나는 친구인 고 공혜숙 장로와 문병을 갔습니다. 목사님은 병환으로 힘드신 가운데서도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병실을 나올 때 목사님

께서는 계속 손을 흔들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그 모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안순 은퇴권사_충구·용산교구

서울시 중구 영희정 69 베다니교회. 내 본적지입니다.

나는 한경직 목사님과 본적지가 같습니다. 고향을 떠나오신 목사님은 교회를 새로운 본적으로 삼으셨고, 압록강 강변과 제주도에서 목회하셨던 나의 선친도 같은 주소를 본적지로 삼으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1988년 한국순교자기념관을 봉헌하고 기독교백주년기념사업회 총재를 마무리해서 여유가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차 안에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집사는 촬영을 많이 하시는데… 사진은 역사야. 교회 사진을 많이 찍어 남기세요” 그분은 나에게 새로운 미션을 안겨 주셨습니다.

김성보 은퇴안수집사_노원교구



한경직 목사님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사업을 하던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며 용기를 주셨고 회사가 어려울 때 네 번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주셨습니다. 잊지 못할 한경직 목사님... 그래서 저는 한 목사님을 기념하는 ‘슈페리어’ 재단을 만들어 목사님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귀열 은퇴장로_강남교구

제가 살던 노량진의 집을 처분하여 송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건축기금으로 헌납한 일은 제 생애 제일 보람 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학생들에게 한 목사님의 신앙 유산을 배울 기회를 제공한 것 같아 지금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당시에 한 목사님께서 “괜찮겠냐”고 물어보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씀드리니 제게 고맙다고 말씀하시던 목사님의 음성이 생생합니다.

김덕윤 은퇴권사_용산교구

한 목사님은 늘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교사양성반 3기 교육을 마치고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목사님은 어린이들을 너무 귀여워하시며 사랑하셔서 주일 오전 8시 반 예배를 앞두고 본당 앞 계단에서 꼭 서계시며 오는 어린이들을 따뜻하게 맞아 쓰다듬어주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본당 계단을 오를 때면 더없이 자애로웠던 목사님 모습이 떠오릅니다.

송학승 은퇴장로_강남교구



1992년 여전도회중앙회 임원으로 섬기고 있을 때 1·2·3·4여전도회 임원들과 남한산성에 계시는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뵙곤 했습니다. 우거저 작은방에서 저희를 만나주신 목사님은 누구에게나 존대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방바닥에 같이 앉아서 한참을 저희와 담소 나누시던 기억이 납니다.

김명옥 장로_성남·분당교구

1964년 11월 14일. 제1공수특전단 대위 강신만과 원길자의 결혼예배를 한경직 목사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신부가 목사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신선한 모습과 군 장성, 전 국방부장관, 공수단 장교들, 미군 특수부대 장교들 등 이색적인 하객들로 인해 주례사가 평소보다 다소 길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사랑에 넘친 말씀을 주례사로 전하셨던 목사님. 그 후로 저희 부부는 영락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오늘날까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강신만 장로 + 원길자 권사_강서·구로·양천교구



어려서 낙산 아래 이화장 근처에서 살면서 동네 교회에 다니다 부모님 따라 영락교회에 출석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존재와 말씀은 어린 나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목사님은 나의 신앙생활에 큰 나침반이셨고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도 큰 버팀목이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결혼주례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때마다 늘 새 힘을 얻습니다.

양지청 장로_서초교구

결혼 후 학교에 나가면서 여전도회장을 맡았을 때 한경직 목사님을 가끔 뵈었어요.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지 제 얘기를 먼저 하는 편은 아니었던 제게, 목사님은 “요새 학교는 잘 나가느냐” 물으시고 “바쁘게 지내네” 말씀하곤 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관심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 중에 느끼게 해주셨지요. 목사님은 누구를 만나 대화하든지 참 부드러우셨어요. 그분의 특징이셨지요. 학교 일과 집안일 하는 저를 늘 바쁜 사람으로 여기시고 여러모로 생각을 해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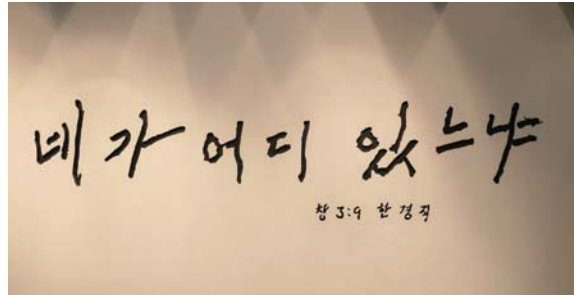
조의숙 은퇴권사_성남·분당교구

한경직 목사님,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렸던 2000년 어느 날도 생각납니다. 기도원 올라갈 때마다 보았던 “五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비석도 떠오릅니다. 몸소 실천하신 겸손과 청빈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이 오늘의 한국 교회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그 리더십을 본받고 따르고 싶습니다.

송승호 집사_마포·영등포교구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한경직 목사님에 관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6·25 때 이북에서 피난 오셔서 영락교회를 다니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너무 행복해하셨고, 그때의 목사님 말씀이, 그 시절의 교회가 그림과 목사님이 많이 보고 싶다고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탁상에는 성경책과 한경직 목사님 사진이 올려져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윤예지 성도_대학부 45기



저는 직접적인 대화는 나눈 적은 없지만, 교회 뜰에서 종종 뵈기도 했습니다. “네가 어디있느냐” 목사님의 붓글씨에 힘이 살아있습니다.

소남호 안수집사_마포·영등포교구

저는 주일학교 장소인 교육관으로 향하다가 교회 마당 우물이 있는 중간 계단에서 항상 손을 모으고 서 계신 한경직 목사님께 달려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떨 때는 매달리고 귀찮게 해드린 것 같은데, 아주 다정하게 해주셨어요. 어머니와 금요철야기도회에 참석했던 어느 날, 목사님 뒤에 앉았던 저는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귀를 기울여보니, 밤새도록 “아부지~~”라고 나지막하게 부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7남매를 보시고, “기천이는 목사님이 되면 좋겠어요”라고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소기천 목사_장신대

저는 교회학교에서 보여준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여러 영상과 자료,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 목사님에 관해 알게 되었습니다. 템플턴상을 수상하셨을 때 목사님께서 신사참배 사실을 그 축하받는 자리에서 고백하신 것을 알았을 때, 사실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 용기를 내야 하는지를 깨닫고, 목사님의 한없이 인간적인 모습과 겸손한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조나단 성도_대학부 45기

아름다운 울림을 위한 마음조율 「가문비나무의 노래」

우리말에 ‘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일정하게 켜를 지어 짜인 바탕의 상태나 무늬’를 의미합니다. ‘결’은 굳은 시간과 무른 시간이 머물던 흔적입니다. 그래서 ‘결’이 쌓일수록 존재는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집니다. ‘결’은 과거의 흔적이지만, 오늘뿐 아니라 미래를 보여 줍니다. 변덕스럽지 않은 성실함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믿음, 아름다운 신앙, 그리스도인다움... 모두 우리가 바라는 것들입니다. 공통점은 그 속에 ‘좋은 결’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쉽게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을 향해 묵묵히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결을 쌓으며 살고 있을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 삶과 신앙의 ‘결’을 생각하게 합니다. 독일의 바이올린 제작자 마틴 슐레스케의 책 「가문비나무의 노래」는 그가 작업실에서 악기를 제작하며 얻은 묵상과 지혜를 들려줍니다. 장인은 어떤 경우에도 악기를 허투루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공정 하나하나에 자신의 혼을 불어넣습니다. 장인이 손끝으로 정성스레 나무를 세밀하게 깎고 다듬어 아름다운 울림을 가진 바이올린을 만드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손끝이 자신의 내면과 영혼의 결을 섬세하게 이루만지심을 경험합니다.

저자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울림을 가진 악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틴 슐레스케 지음, 도나타 벤더스 사진 / 니케북스 / 232쪽

께서 당신의 생명을 다해 만드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굴곡지고, 또 어떤 부분은 패이거나 돌아있지만,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습니다. 저자의 말처럼 “우리의 울림은 기계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생명이 숨 쉽니다”

「가문비나무의 노래」는 1년 52주, 365일의 짧은 글귀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아끼면서 읽고 싶은 책입니다. 책의 곳곳에 담긴 사진작가 도나타 벤더스의 사진들은 바이올린이 탄생하는 과정의 아름다움을 담아 문장들과 어우러져 보다 깊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4월,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을 다시 기억하며 성숙한 믿음, 아름다운 신앙, 그리스도인다움의 결을 더욱 견고하게 쌓아가는 영락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남**



박성은 목사
서대문·은평교구
선교부(군선교, 문화)



헨델의 “주님께 영광”

165 주님께 영광 (통 155)
 E. L. Budry, 1884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통 4:25) JUDAS MACCABAEUS: 10.11.11. REF. G. F. Handel, 1748

파르제 120

1.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2.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3.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이 기 시 었 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물 리 치 셧 네 주 의 교 회 기 때 찬 송 하 여 라
 헛 될 뿐 이 라 주 의 사 랑 으 로 세 상 이 기 고

후렴
 누 우 셧 던 곳 은 비 어 있 었 네 주 님 께 영 광
 다 시 사 신 주 님 죽 음 이 겼 네 주 님 께 영 광
 요 단 전 너 본 향 가 게 하 소 서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 기 시 었 네

이 찬송은 헨델(George Frideric Handel, 1685~1759)의 오라토리오 ‘유다스 마카베우스(Judas Maccabaeus)’ 3막 중 한 곡을 개사한 것이다.

독일 사람이었던 헨델은 1726년 영국에 귀화해 명쾌하고 성악적이며 듣는 이들을 즐겁게 하는 재치 있는 음악으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오페라만도 46편을 작곡한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로 큰 명성을 누리고 있었다.

George Frideric Handel



헨델은 당시 오페라를 주로 공연하면서 큰 성공을 누리고 있었지만 존 게이(John Gay, 1685~1732)라는 작곡가가 쓴 오페라가 더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헨델의 오페라는 인기를 잃어 가고 있었다.

헨델의 오페라는 이탈리아의 신화나 전설을 바탕으로 하는 데다, 이탈리아 언어로 공연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가까이하기 힘들었다. 헨델의 오페라는 한번 공연에 엄청난 예산이 필요했던 반면, 영어로 공연하는 존 게이의 ‘거지 오페라(The Beggar’s Opera)’는 죄수나 거지들의 생활을 주제로 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더 큰 인기를 얻었다.

오페라 극장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하게 된 헨델은 과감히 오페라에서 벗어난다. 헨델이 새롭게 제시한 것이 오라토리오다. 오라토리오는 줄거리는 있으나 무대장치나 의상, 연기가 없어 공연 비용이 적게 들지만, 극적인 부분이 부족해 오페라보다 인기가 덜 한 장르였다. 하지만 헨델은 합

창을 강화하여 민중의 소리를 내며 극적인 부분을 보완했다. 그는 20여 년 동안 23편의 오라토리오를 작곡했고, 그중 하나가 헨델의 가장 위대한 음악 유산 ‘메시아’다.

오라토리오 ‘유다스 마카베우스’는 ‘메시아’가 나오고 5년 후인 1746년 작곡했다. 토마스 모렐(Thomas Morell, 1703~1784)이 대본을 쓴 이 작품은 외경 『마카비 1서(I Maccabees)』에 기록된 마카베우스라는 영웅 이야기를 기초로 하고 있다. 마카베우스는 기원전 170~160년 셀루시드 제국이 유다를 점령 통치하고 있을 때, 유대인 봉기를 주도해 예루살렘에서 셀루시드 제국 군대를 몰아냈다. 영국에서 하노버 왕조를 무너트리고 스튜어트 왕조를 수립하려는 반란이 일어났을 때 윌리엄 공(Prince William Augustus, 1721~1765)의 승전으로 하노버 왕조를 지켰는데, 그 승전을 기념해 오라토리오를 완성하여 윌리엄 공에게 헌정한 것이다.

이 작품은 ‘메시아’, ‘이집트의 이스라엘인’과

함께 헨델의 3대 오라토리오 중 하나로 일컬어진다. 영국교회에서도 연주한 적이 있는 이 오라토리오의 3막에는 유명한 곡들이 몇 곡 있다. 우리 찬양대에서 많이 부르는 ‘하나님께 찬송드리세’,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고 사랑하는 부활 찬송가 ‘주님께 영광’(원제: See the Conqu’ring Hero Comes)이다. ‘주님께 영광’은 에드몽 루이 뷔드리(Edmond Luis Budry, 1854~1932) 목사가 로마서 4:25과 고린도전서 15:54~58을 배경으로 프랑스어로 작시한 것을 리차드 호일 목사가 1923년 영어로 번역했고, 2년 후 세계 기독교 학생연합회의 찬송가집에 실렸다.

스위스에서 출생한 뷔드리는 어려서부터 경건한 신앙 교육을 받았으며 스위스 로잔(Lausanne)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브베(Vevey)에서 35년간 목사로 시무하며 60여 편의 찬송시를 썼다. 이 찬송은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면서 만방에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곡으로서, 1절에서 사망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2절에서는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을 물리치게 하시고, 3절은 주님 없는 삶은 우리에게 헛되며,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 후렴은 처음 8마디를 반복하며 사망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구세주를 찬미하고 있다. 음악적으로 ABA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 부분은 주님의 부활과 승리를 찬양하는 힘 있는 마르카토(marcato) 느낌으로, B 부분은 서정적인 느낌으로 부드럽게 찬양해서 대조를 이루는 것이 좋다. 이에 더해, 각 절을 다른 느낌으로 부를 필요가 있다. 원래 오라토리오에서 1절은 어린이 3중

창, 2절은 여성 2부 합창, 그리고 3절은 혼성 4부 합창으로 곡의 분위기를 점점 더 살리고 있다. 전체적으로 기쁨과 확신에 가득 차서 찬양하되, 3절을 클라이맥스로 찬송한다면 더없이 극대화된 음악적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 찬송과 연관된 고린도전서 15:55~57 말씀으로 글을 맺는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55~57) **만남**



박신화 장로
마포·영등포교구
갈보리찬양대 지휘자

고난과 축복



언젠가부터 가시가 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 끌고다 고난의 언덕을 넘어 암흑의 시간인 죽음을 묵묵히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게 된다. 언젠가부터 백합꽃을 볼 때마다 그 모양에 반하고 향기에 취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기를 소망하게 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에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에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고린도후서 2:14~16)

그리스도의 향기는 끌고다 언덕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작으나마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라디아서 2:20)

가시에 찢리는 듯한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의 삶으로 꽃피우길 기도한다. **만남**

이혜순 권사_강남교구

교회소식

news letter

‘별을 노래하는 마음’ 2021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회



2021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란 주제로 지난 2월 22일(월)부터 27일(토)까지 매일 오전 6시(27일은 6시 30분) 본당에서 열렸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도 진행된 이번 기도회는 영·유아·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 산하 전 교육부서를 비롯해서 호산나찬양대, 자유인 청년부 등 영락의 모든 다음세대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기도회 기간에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한 김운성 위임목사는 “영락의 모든 자녀들이 혼란하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던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란다”며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기도회에 참여한 성도들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통해 믿음의 다음세대를 일으키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기로 다짐했다. 이번 기도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니엘처럼 강건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우뚝 성장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영적 결단의 시간이 되었다.

취재 박진현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대한독립만세! 만세! 만세!”… 삼일절 기념예배

제72주년 삼일절 기념예배가 지난 2월 24일(수) 1부 수요기도회 시간에 열렸다. 1여전도회장 구성숙 권사의 인도로 진행된 이날 기념예배는 강신재 권사(2여전도회장)의 기도, 이지선 집사(4여전도회 부회장)의 성경봉독, 황광용 목사의 설교, 정해옥 권사(3여전도회장)의 독립선언문 낭독, 임정산 은퇴장로의 만세삼창 인도, 애국가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민수기 35:9~15 말씀을 바탕으로 ‘도피성’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한 황광용 목사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굳게 지키며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들의 정신을 기억하자”면서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권



면했다. 참석자들은 72년 전 그날의 함성을 함께 기리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웃과 사회를 향한 헌신적 사랑을 실천하기를 다짐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우리 교회, 예장 총회에 코로나19 피해구호금 1억원 전달



우리 교회는 지난 2월 25일(목) 코로나19 피해구호를 위한 2차 전국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를 방문해 피해구호금 1억원을 전달했다. 김운성 위임목사와 총회장 신정호 목사, 본 교회 당회 서기 김순미 장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달식에서 김운성 목사는 “코로

나19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모든 교회들이 어렵고, 자립대상교회를 포함한 작은 교회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총회에서 코로나19 피해구호를 위한 2차 모금을 한다는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전달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국내 발생 초기였던 작년 2월 중국 우한에서 철수한 교민들을 맞아준 충남 아산 시민들을 위해 1천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했으며, 5월에는 서울·충주·충남·진주노회 소속 자립대상교회와 상가교회에 총 1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8월 26일에는 수해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교단 산하 교회들과 총회 파송 선교사들을 위해 구호금 1억 원을 총회에 전달한 바 있다.

취재 장덕진 편집위원 사진 한국기독교공보

북녘 땅에 복음을 허락하소서! 2021년 제1차 영락포럼

북한선교부(부장 서상현 장로)가 주관하는 2021년 제1차 영락포럼이 ‘최근 북한 정권 정책변화에 따른 김정은 정권 미래와 복음통일 전략’이란 주제로 지난 3월 19일(금)에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줌(Zoom)과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사진)이 강사로 나서 한국 교회 복음통일 전략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중앙일보 북한·통일 전문기자로서 50여 회에 걸쳐 북한을 방문, 현지 취재를 진행하기도 했던 이 소장은 강연을 통해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은 평양에서조차 배급과 보급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으며, 효과적인 복음통일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북한의 가정교회 등에 관한 실태 파악과 자유인들을 통한 대북선교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의료시스템 한계점을 파악하고 교회 차원의 의료적 지원을 통한 선교방안에 대해 먼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제강연 후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240여 명의 성도와 자유인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선교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제공 류승용 집사(북한선교부 영락포럼 팀장) 사진 원종석 기자

전곡중앙교회 위로예배 및 화재 복구를 위한 지원금 전달

우리 교회는 지난 3월 19일(금) 최근 화재로 예배당을 잃은 경기도 연천군 전곡중앙교회(용천노회, 백성국 목사 시무)를 방문하여 전곡중앙교회 성도들과 함께 위로예배를 드리고, 화재 복구를 위한 지원금을 전달했다.

차동혁 목사(선교부 전담) 인도로 진행된 위로예배는 김순미 장로(당회 서기)의 기도 후, 김운성 위임목사가 이사야 6:11~13을 바탕으로 ‘아직 그루터기가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김운성 목사는 설교에서 “이사야 6장의 말씀 속에서 황폐함 속에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그 그루터기를 통해 일하신다”며 “비록 화재로 인해 예배당 건물은 없어졌지만 전곡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전곡중앙교회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강조하면서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자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백성국 목사는 참석자들에게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소개한 후 “귀한 마음



을 모아주신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전곡중앙교회 온 성도가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위로예배에는 김운성 목사를 비롯한 교역자와 당회원, 행정처, 선교부, 노원교구, 고등부, 안수집사회 대표가 참석하여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예배 후 진행된 전달식에서는 화재복구 현금으로 모인 2억 1706만원을 전달했다.

전곡중앙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며 돕는 교회’를 지향하며 2005년 연천연탄은행을 설립, 매년 10만장의 연탄을 연

천 지역 내 소외이웃들에게 나눠주고 2008년부터는 연천푸드뱅크 운영을 통해 매년 약 5억원의 식료품을 무료로 전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에 힘써왔다. 그러나 지난 1월 11일 갑작스러운 화재로 본당이 전소되고 본당과 인접한 교회식당과 사택 등도 일부 파손되는 등 큰 피해를 입어 교계와 지역사회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사진제공 설경문 집사



기독교사학법인 연합체 ‘미션네트워크’ 출범



136년만에 첫 기독교 사학법인 연합체 결성 기독교사학 정체성·건학이념 수호나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 움직임으로 기독교학교 교육현장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기독교사학의 정체성 수호와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사학법인 연합체가 출범했다. 기독교사학 법인들이 모여 연합체를 구성한 건 1885년 조선에 입국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최초의 근대 기독교학교인 배재학당과 경신학당을 설립한 이후 처음이다.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기정추) 주관으로 3월 11일(목) 서울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가칭) 출범식에는 영락·대광학원 이사장인 김운성 위임 목사를 비롯 한동대 이사장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숭실대 이사장 박광준 장로(영락교회), 영훈학원 이사장 김은호 목사(오륜교회)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미션네트워크의 설립 취지와 관련해 기정추 위원장인 김운성 목사는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 기독교사학 건학이념의 구현”이라며 “21대 국회에 발의된 사학법 개정안을 보고, 기독교사학의 정체성과 건학이념을 지키며 기독교사학 발전의 중심이 되어줄 연합체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며 취지를 밝혔다. 미션네트워크 준비위원장을 맡은 이재훈 목사는 “미션네트워크는 기독교사학 법인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학교 설립 초기의 건학이념으로 돌아가도록 도움 계획”임을 언급하며 “5월 창립총회를 열어 공식 법인을 발족한 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향후 운영계획을 밝혔다.

이날 출범모임에는 기정추 운영위원장 박상진 교수(장신대)와 사무국장 함승수 교수(숭실대)가 미션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역할,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교수는 “기독교사학 법인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독교사학 유관단체, 교계, 교육계, 법조계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함 교수는 “사학법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 1/2을 개방 이사로 강제 증원하고 학교장 임용권 제한, 교원임용 강제위탁 등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강력히 제한하는 내용이 있어 기독교사학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다”며 사학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제공 국민일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만남 5월호 원고를 널리 모집합니다

주제 1: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

2: 어머니, 나의 어머니

- 아동부, 소년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도 환영합니다.

마감일자: 4월 11일

원고 보내는 곳: youngnak-hb@daum.net

문의: 홍보출판부(봉사관 503호)

02)2280-0197

* 기타 간증 및 수필 원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그림편지도 환영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집중(Focus On)하라! 대학부 겨울수련회

대학부(부장 박일환 장로) 겨울수련회가 ‘포커스 온(Focus On)’ 주제로 지난 2월 14일과 21일의 대학부 주일예배, 20일(토) 온라인 모임을 통해 진행됐다. 14일과 21일 오후 1시 50주년기념관 드림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대학부 수련회에서는 탁현수 목사(대학부 지도)가 마태복음 14:27 말씀을 중심으로 두 차례에 걸쳐 말씀을 전했다. 탁 목사는 이번 수련회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문제가운데 빠져 있기보다는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다”면서 “우리가 주님께 마음의 시선을 집중(Focus On)한다면,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틀림없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며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20일 저녁 진행된 비대면 온라인 모임에서는 대학부 학생회가 준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통해 대학부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이어졌다.

제공 하예훈(대학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년들의 신앙과 삶’ 청년부 겨울수련회



청년부(부장 홍영남 장로) 겨울수련회가 ‘어웨이킹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년들의 신앙과 삶(요한복음 4:35)’ 주제로 지난 2월 21일과 28일의 청년부 주일예배를 통해 진행됐다. 21일과 28일 오후 1시 베다니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한 가운데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는

21일 사람살리는교회 라준석 목사(사진)와 28일 장신대 송용원 목사가 강사로 나서 영락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에베소서 4:25~32을 바탕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제목의 말씀을 전한 라준석 목사(사진)는 “크리스천이 만든 빵은 맛있어야 한다”는 비유를 통해 혐오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삶의 태도와 가치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28일에 이사야 54:10과 요한계시록 1:8을 본문 삼아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서’라는 말씀을 전한 송용원 목사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앞에 처한 어려운 상황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망각하지 말자”며 청년들의 영적 각성을 촉구했다.

취재 나광호 편집위원

영락고 교장 이·취임



영락고등학교는 지난 2월 5일(금) 본교 추양관에서 제11대 양희성 교장 정년퇴임 및 제12대 김성식 교장 취임예배를 드렸다. 학교법인 영락학원 이사장인 김운성 위임목사와 이사진, 영락고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예배

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 김준희 목사의 인도로 부이사장 이영철 장로의 기도 후 김운성 목사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긴 것(신명기 31:7~8)’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임사를 한 전임 양희성 교장은 이임사를 통해 “영락학원에서의 교직 생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밝혔고, 신임 김성식 교

장은 취임사에서 영락고등학교가 나아갈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했다.

제공 영락고등학교

보성여고 교장 이·취임

보성여자고등학교는 지난 2월 17일(수) 본교 환경직목사 기념관에서 제15대 남명환 교장 이임 및 제16대 주용호 교장 취임예식을 가졌다. 이날 예식은 교목실장 최정민 목사의 사회로 김운성 위임목사 및 학교법인 보성학원 이사장 정천우 장로를 비롯한 이사진,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운성 목사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긴 것’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임하는 남명환 교장과 취임하는 주용호 교장 간에 하나님 주신 소명의 전수가 잘 이루어져 늘 발전하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이임 교장 소개, 공로패 증정, 신임 교장 소개, 임명장 수여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정천우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임 교장에겐 감사, 취임 교장에게는 격려의 말을 전했다.

본 교회 집사(중구·용산교구)인 남명환 교장은 32년간 보성학원에 봉직하며 평교사 시절 현재의 학생예배 찬양팀



‘달리다굼’을 창단한 뒤 학교 기도실을 제안하여 만들었으며 8년간 교장 재임동안 대학 진학률을 2배 이상 높였다. 주용호 교장(동천교회 출석)은 찬양팀을 이어 맡아 학생들과 함께했고 3학년 진로진학부장으로서 학교 발전을 도왔다.

제공 보성여자고등학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 자원봉사부

교회 사랑 실천 캠페인
Together

내 교회를 내 손으로 깨끗하게

일시 2021년 4월~12월 매주 화, 토요일 오전 10시~12시

장소 벨엘 예배실, 자모예배실, 중보기도실

신청 자원봉사부 Tel. 010-5312-2323, QR코드

4월 목회력

2일(금)	성금요일, 연합권찰공부
3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4일(주일)	부활주일, 부활주일 음악예배
11일(주일)	찬양예배 성찬, 제직회
16일(금)	한경직목사 성묘예식
18일(주일)~24일(토)	한경직목사 기념주간
23일(금)	심방준비회
25일(주일)	사회복지재단 헌신예배, 다음세대 기도회, 사회봉사주일

※ 4월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편집장 레터

깜깜한 인생의 문제가 있어서 벤엘 개인기도실에 들렀다. 불꺼진 기도실 안은 내 마음처럼 깜깜해서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기도방석 위에 무릎꿇고 한참을 기도하다가 문득 눈을 뜨니 그 제야 앞 벽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드러나온다.

불도 없는 무덤 속은 깜깜했을 겁니다. 칠혹같은 어둠을 떨치고 빛으로 일어나오신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축하하며 4월호를 꾸몄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소망의 메시지로, 사진으로, 건축물을 통해 전하고자 했습니다. 또 4월에 소천하신 한경직목사님을 추모하며 목사님의 리더십을 회고해보고, 목사님의 신앙유산을 이어 받아 새로이 개설되는 한경직복음학교를 소개했고, 목사님의 책을 읽고 난 소감을 웹툰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달에 있었던 각 교육부서의 수련회에 대한 글과 소식을 게재 했습니다.

반가운 것은 지난 달에 실렸던 잠비아 선교 사역과 연계되어 잠비아에서 온 유학생이 지난 달에 우리교회 대학부에 등록을 했네요. 지난 달에 이어 '성서의 현장'으로는 다윗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진과 도해를 수록했습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 계속 원고 보내주시는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도 속에 만들어진 이번 『만남』이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이웃에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장 김기선

2021년 4월호 통권 566호

발 행 2021. 4. 1.

발 행 인 김운성

편 집 인 양지청

편집위원 김기선 박선이 김갑수 김경옥
김창섭 김효진 나광호 안동현
안하윤 우대권 유혜정 이준영
임대현 장덕진 정용성 최윤미

교 열 계영희 이광미

발 행 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 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 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 자 인 design D.I

스마트한 e세상, 웹진 만남



인터넷 브라우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www.youngnakmn.net



월간「만남」웹진



월간「만남」앱
안드로이드용



월간「만남」앱
아이폰용

예루살렘 다윗성 2021년 현재 모습

감람산



5. 실로암 못에 위치한 '실로암 비문'

히스기야 시대 석공들이 남긴
지하 수로공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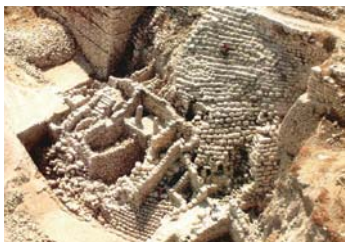
4. 기혼샘에서 실로암까지 533미터

히스기야 수로-지하 터널 (열왕기하 20)



1. 성전

솔로몬 성전(열왕기상 6)
모리아산(창세기 22)
아라우나(오르난)
타작마당(사무엘하 24)



2. 다윗 왕이 건설했던 성벽

여부스 족을 정복하고 세운
다윗성 고고학적 흔적(사무엘하 5)



3. 기혼샘

솔로몬이 기름부음 받은 곳(열왕기상 1)
히스기야 수로 시작 지점 (열왕기하 20)

다윗이 나이가 삼십 세에 왕위에 올라
사십 년 동안 다스렸으며
헤브론에서 칠 년 육 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다윗성)에서 삼십삼 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사무엘하 5:4~5)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등장하는 다윗성(예루살렘성)의 현재 사진을 보면 <말씀대로 365>에서 요즘 읽고 있는 성경 내용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현재의 예루살렘 다윗성의 모습을 구약시대와 비교하며 당시 흔적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올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다윗성에서 33년간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사무엘하 5). 다윗성과 예루살렘성 그리고 시온성은 모두 동일한 곳이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예루살렘은 기본적으로 이 지역을 뜻한다.

주전 1,000년경 다윗왕이 여부스족을 정복하고 이곳을 다윗성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법궐을 이곳으로 옮기고 정치와 신앙의 중심지로 삼았다(사무엘하 6). 다윗성은 이스라엘의 남과 북을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어서 지경학적으로도 중요한 곳이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등 이스라엘 왕들이 모두 이곳 다윗성에 장사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열왕기상 2, 11, 14).

다윗성 북쪽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창세기 22)이 있고, 이곳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오르난)의 타작마당(사무엘하 24)이 있던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열왕기상 6)을 지은 곳이기도 하다.

다윗성 외곽에 이 지역의 유일한 수원지인 기혼샘이 있다. 솔로몬은 이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열왕기상 1). 주전 7세기 앗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한 히스기야왕은 기혼샘(수로)과 성벽을 보수했다. 히스기야 시대에 완공된 수로(터널)는 다윗성 밖의 물 근원 기혼샘과 성 안의 실로암을 연결하는 예루살렘 백성을 위한 지하 상수도 시스템이다(열왕기하 20).

영락화랑

고난과 축복



이혜순, Watercolor on Paper, 38.5×52.5cm, 2020년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아가 2:1~2)